



Global Market Report 14-011

2014.05.2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남·북유럽



CONTENTS

목 차

I. 요약	1
II. 핀란드	3
III. 스웨덴	15
IV. 이탈리아	29
V. 스페인	58
VI. 그리스	77
첨부 1. 국가별 14년 경제 기상도 및 특이사항	92
첨부 2. 국가별/산업별 경기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93

요 약

2014년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기불황을 겪은 유럽에게도 올 한해가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국 정부나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유명 분석기관의 전망에서 볼 수 있듯 유로존의 불황 탈출은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4년여간 계속된 재정위기의 여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별로 달랐던 만큼 회복 속도나 정도 역시 상이할 전망이다.

일단 유로존의 독보적 우등생인 독일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 소비, 수출을 바탕으로 탄탄한 체력을 회복해 가는 한편,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비로소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가 확산될 경우 강력한 뇌관으로 지목되던 프랑스나 전통적인 서유럽의 강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높은 실업률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서유럽의 공장’으로 성장을 꺾하던 동유럽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유럽의 수요 급감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유로존 경기회복과 EU 기금 활용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EU 회원국이면서도 파운드화를 고수중인 영국이나 EU와 별도 노선을 걷는 스위스는 유로존에 비해 상당히 선전하면서 올해에는 유럽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확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의 유럽 경기회복 조짐은 對유럽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던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高실업률 장기화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 경제 개혁 미진에 따른 생산성 회복 미흡, 각종 정치적 이슈로 인한 사회 갈등 등이 회복 정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한편, 재정위기 동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전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효자산업의 재도약 여부가 경기활성화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별 기상도에는 차이가 있어 향후 회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및 부품) 재정위기의 직격탄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냈으나 2014년에는 신차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완성차는 물론 부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상승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AS부품의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지원 축소로 고전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EU의 친환경정책 고수를 통해 재부상할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과의 분쟁으로 얼룩진 태양광 발전 뿐 아니라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 여부가 관건인 상황에서 친환경, 고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설비가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전기전자) 세부 부문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기술혁신 제품과 범용제품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스마트기기, 기술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제품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유럽 등 EU기금을 통한 통신망 인프라 확충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광케이블을 비롯한 설비 관련 제품의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의약·의료·바이오) 대표적인 노령화 사회인 유럽은 이 분야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 왔는데 복제의약품, 각종 진단용 영상기기를 필두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유럽의 경우 EU 기금을 활용한 시설 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 섬유·의류) 화학 분야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로 각종 원부자재 수요확대가 기대되며, 대부분의 한국제품은 발효 3년을 맞는 한-EU FTA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시장 공략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섬유·의류 분야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용, 기능성 제품으로의 시장 판도 변화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기계, 식음료, 항공우주, 건설, 철강, 물류, 스포츠·레저 등의 분야가 올 한해 유럽 경기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국가별/산업별 경기회복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에 맞는 시장진출 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I. 2014년 핀란드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GDP) 최근 2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 기록
 - 2011년 2.8% 성장한 GDP는 2012년 -1.0%로 하락한 후 2013년도 -1.4%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재정건전성) 공공부채는 약간 증가(+1.2%)한 것으로 추정되나 EU 내에서는 비교적 건실한 편
 - 공공부채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전년대비 1.2% 상승한 GDP 대비 54.8% 기록
- (실업률) 실업률은 2012년 7.7%에서 8.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8.4%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핀란드 최근 경제지표 동향>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2.8	-1.0	-1.4
재정적자(GDP 대비)	1,955(1.0)	4,274(2.2)	
공공부채(GDP 대비)	92,849(49.2)	103,145(53.6)	105,496(54.8)**
수출금액(증감률)	56,855(8.3)	57,161(0.1)	56,312(-0.1)
수입금액(증감률)	58,113(16.4)	57,252(-1.5)	55,979(-0.2)
실업률	7.8	7.7	8.2
물가상승률	3.3	3.2	2.2

자료원 : Eurostat

* 주 : 2013년 공공부채 비중은 3분기 기준, 2014. 3월 기준 최신 수치

□ 2014년 경기전망

- (GDP) 2014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며 1%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하반기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재정건전성) 2014년 공공부채 비율은 59.2%로 예상되어 정부의 긴축기조가 지속될 전망
 - 이는 1994년 핀란드 경제위기 당시 57.6% 보다 높은 수치로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 세금 인상 등을 통해 80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를 추진 중
 - (수출입) 미국과 EU의 경기회복은 수출 증대 요인이나 내수시장 축소는 수입 감소 요인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핀란드를 포함한 EU국가들의 수출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 노르데아 은행(www.nordea.fi)의 Aki Kangasharju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핀란드와 유럽에 게 미국 테이퍼링은 유로화 약세를 야기, 핀란드와 유럽의 대미 수출 증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핀란드 투자청은 미 양적완화 축소 이후 핀란드에 대한 투자 감소는 없을 것이며, 수출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이 투자유치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실업률) 8% 중반까지 소폭 상승할 전망
 -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고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기업투자) 법인세 인하를 통해 고정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경기부진으로 인해 2012년, 2013년 고정투자가 감소했으나, 2014. 1월 시행한 법인세 인하(24%→20%) 효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1% 성장이 기대됨.
 - (소비심리)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10년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유지
 - 2013. 11월 기준 6.4 포인트였던 소비자신뢰지수가 2014. 1월에는 9.9 포인트로 상승
 -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세금인상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2014년 핀란드 경제는 지난 2년간의 부진으로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재정은 비교적 건실하며 미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2013년 말 기준 EU 27개국의 국가부채비율 평균은 86.9%인 반면 핀란드는 54.8%로 비교적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외부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불확실성이 높음.
 - 현재까지는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동 조치로 신흥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견고한 내수시장이 경제의 버팀목이었으나, 실업률 상승과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됨.

II. 2014년 핀란드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핀란드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제조업 중심에서 IT 등 기술산업 비중 확대
 - 전통적으로 제지, 펄프 및 관련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IT 등 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 * 핀란드는 전기전자, 기계, 금속, IT산업을 기술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약 60%, R&D 투자금액의 약 80%를 차지
- 2013년 기준 32만 여개의 기업이 약 150만 명의 고용창출과 약 3,90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함.

□ 특징

-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
 - 2010년을 전후 Nokia 등 대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라 핀란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주력
 - * 최근 ‘앵그리버드(Angry Birds)’로 유명한 로비오(Rovio)社, 수퍼셀(Supercell)社 등 게임 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
- 정부는 IT, 나노, 바이오산업 중점 육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추진
 - 소규모 창업과 수출이 용이한 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동시에 추구
 - * 핀란드 바이오 기업체 수는 유럽 전체의 10% 수준이며,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 정도임.

<핀란드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100
농업, 어업, 수렵	2.7	2.8	2.9	2.9	2.7
공업(에너지 포함)	24.6	20.4	21.4	20.3	19.1
- 제조업	21.5	16.8	17.4	16.6	15.4
건설업	7.3	7.1	6.7	6.8	7.0
도·소매업, 물류유통운송, 숙박, 요식업	17.2	17.1	16.9	17.4	17.5
정보, 통신	4.8	5.1	5.0	5.1	5.0
금융, 보험	2.8	2.9	2.8	2.9	2.8
부동산	10.8	11.9	11.9	12.2	12.5
전문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7.5	7.8	7.8	8.1	8.4
교육, 헬스케어, 사회복지	10.5	21.6	21.4	21.3	21.9
기타서비스	2.9	3.2	3.2	3.2	3.2

* 주: 세금을 제외한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임. 2014. 3월 기준 최신 수치

자료원: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9185>)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식음료 산업

□ 최신 동향

- 2013년 국내 식료품 산업 생산량 감소
 - 수요 축소에 따라 3분기까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10월 들어 식료품 판매가 전년대비 0.7% 확대
 - 핀란드 소비자들은 2014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식료품 등 소비재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선호 브랜드 변화
 - 세금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자체브랜드 (Private Brand:PB)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또한 저탄수화물, 저글루텐(Gluten)¹⁾,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
- 2013년 식료품 수출입 모두 증가
 - 수출은 전년대비 약 100만 유로(+0.5%)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유제품, 주류 등
 - 수입은 전년대비 약 300만 유로(+5.2%) 확대되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주류, 과일, 치즈 등

□ 전문가 진단

- Fine Food OY(식음료 수입 유통업체)
 - 강한 맛과 건강식을 선호하는 핀란드인들은 한국식품의 잠재적인 소비자임.
 - 카레 등 아시아 특유의 다양한 양념류와 면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불고기 소스, 김치 등 한국음식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

1)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몇 가지 단백질이 혼합되어 존재함.

○ 핀란드 식음료협회

- 2014년 핀란드 식음료 시장은 소폭 상승이 기대됨.
- 최근 소비자 구매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식품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2014년 전망 : 보통

○ 2014년 핀란드 식음료 산업은 전년 대비 약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합리적인 구매성향이 확산되면서 판매 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아시아 식품은 이미 핀란드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아시아 식당을 통해 핀란드인들은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등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접하고 있으며 관심 역시 높은 편
- * 일부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별도 코너를 구성할 만큼 아시아 식음료는 대중적임.

○ 핀란드 유통시장은 Kesko Group과 S-Group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기존 아시아 식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

□ 수출 유망품목

○ 불고기 소스(MTI 014390)

- 현지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조리(ready made) 소스에 대한 선호가 높음.
-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반조리 소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육류를 선호하는 핀란드인에게 불고기 소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김치 통조림(MTI 016900)

- 핀란드에서도 김치의 효능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일반 포장 김치는 특유의 냄새로 인해 호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진공포장

또는 통조림 형태의 김치가 시장 진입에 효과적임.

나. (신재생)에너지

□ 최신 동향

- 핀란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국가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 개선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주요 목표임.
 - 신재생에너지는 핀란드 전체 에너지와 전력생산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우드칩 등 목재)와 풍력임.
- 풍력에너지 시장은 2011년 이후 급속한 성장세
 -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 풍력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낮았으나,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 향후 약 10년 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정부는 2020년까지 2,500 MW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재정위기 이후인 2011년에도 관련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바 있음.
 - 2014년 현재 MW당 105.3유로에 풍력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2015년 말 지원금을 83.5유로로 조정할 예정

□ 전문가 진단

- Taaleritehdas OY(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핀란드 외 다른 국가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동 은행 기업 역시 9,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바이오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 개발에도 참여 중

□ 2014년 전망 : 밝음

- 2014년 핀란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 성장이 예상됨.
 - 2013년 11,000 M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도 이어질 전망

- 현재 최대 신재생에너지원인 바이오에너지 역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시장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임.
 - Vestas社, Siemens社, Enercon社 등 유럽업체가 시장을 선점하여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 플랜트 전체보다는 터빈 등 특정부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수출 유망품목

- 풍력터빈(MTI 71130)
 - 한국산 풍력터빈은 유럽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며 품질 또한 우수한 편으로 시장성이 있음.
- 바이오에너지 플랜트(MTI 71130)
 - 핀란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바이오에너지 사용이 활발함.
 - 핀란드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5% 선에서 전체 에너지의 38%까지 올릴 계획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다. 의류·섬유

□ 최신 동향

- 기능성 제품, 여성복, 가정용 직물 위주의 시장 구조
 - 핀란드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최고 60도 이상일 정도로 계절차가 심해 기능성 의류의 판매 비중이 높음.

- * 전체 의류 판매 중 아웃도어 의류 비중이 약 40%로 연간 판매금액은 34억 유로에 달함.
- 중년 여성층이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
- * 중년 여성들은 본인의 의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커튼, 식탁보 등 가정용 천에 대한 구매 역시 주도하고 있음.
-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속화
 - 대부분의 직물 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인 가운데 핀란드의 대형 의류, 직물업체들은 디자인과 개발 기능을 제외한 생산기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높음.

□ 전문가 진단

- 핀란드 섬유 의류 협회
 - 2014년 핀란드 의류·섬유 시장은 2013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있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차츰 활성화될 전망
- M.A.S.I Company Oy(의류업체)
 - 겨울이 길고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지속되는 기후 특성상 방한의류 및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핀란드인들은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커튼, 식탁보, 침구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 2014년 전망 : 밝음

- 2014년 핀란드 의류·섬유시장은 전년 대비 약 3% 성장할 전망
 - 핀란드 섬유협회는 소비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시장 확대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이미 많은 아시아 제품들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음.
 - Superdry 등 일본 브랜드들이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에서 OEM으로 생산한 의류들도 상당수를 차지

○ 품질과 치수는 시장 진출의 중요 요소

- 타깃시장에 따라 품질과 가격책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가품 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임.
- 일반적으로 아시아 제품의 치수는 핀란드에 비해 작은 편이므로 현지에서 통용되는 치수 기준에 맞춰 제작해야 함.

□ 수출 유망품목

○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MTI 44310)

- 중년층에서 고기능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유럽진출 경험이 있는 브랜드는 핀란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 * 핀란드인의 연간 의류 지출비용은 2012년 기준 약 960 유로로 EU 평균(615 유로)에 비해 높은 편

○ 스카프, 모자 등 패션 액세서리(MTI 449001, 449003)

- 한국의 패션 아이템은 핀란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꼽힘.
- * 헬싱키에서는 K-pop 행사인 안녕파티(Annyeong Party)가 2014. 2월까지 총 13회 개최됨. 빅뱅, 슈퍼주니어, 엑소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중고생을 중심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

라. ICT · 전기전자

□ 최신 동향

○ 전기전자산업은 핀란드의 핵심 산업임.

- 2012년 기준 19억 유로의 매출과 5만 4,000명의 고용을 창출
- * ABB社, Elcoteq社, Ensto社, NSN社, Perlos社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이 활동 중
- 수년간 기술산업 R&D 투자의 75%(연간 약 20억 유로)가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생산량의 약 80%가 수출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산업발전에 따라 전기·전자산업의 적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
 - 휴대전화와 같은 제품 생산 뿐 아니라, 자동차부품 생산, 기후예측시스템 등의 솔루션 제공 역시 동 산업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추세
 - 과거 핀란드 대표기업이던 Nokia社가 경영난을 겪는 사이 Rovio社, Supercell社로 대표되는 게임업체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

□ 전문가 진단

- 핀란드 전기·전자산업협회
 - ICT 분야는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심화는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생산거점이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주요 분야가 완제품 제조에서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으로 바뀌고 있어 이에 뒤처지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전망 : 흐림

- 2014년 핀란드 ITC·전기전자 산업은 전년 대비 약 5% 감소 예상
 - 수출의존도가 높은 탓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해외 신규업체의 등장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낼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일본 브랜드와 중국 가제품은 핀란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차별화 되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
 - 삼성, LG 등 대기업 외에 핀란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이 필요
 - * 한국 제품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양호한 품질로 인식되고 있으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확실한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유망품목

○ 핵심 부품류(MTI 812810, 835110)

- 핀란드의 주요 기업들은 고품질의 핵심부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한국 기업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 시계,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 안테나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함.

○ 소프트웨어(MTI 813700)

- 전통적으로 핀란드 ICT 산업은 제조업에 치우쳤으나, 최근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현재 한국 게임, 그래픽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스웨덴]

I. 2014년 스웨덴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13년 GDP 성장률 0.9%로 추산
 -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13년 GDP성장률은 '12년 (1.3%)보다 소폭 오른 1.5% 기록(EIU)
 - '11년 대비 '12년과 '13년에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
 - * 적은 인구로 내수시장이 협소해 해외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역내 교역이 70%를 차지
 - 주요 교역상대인 유럽 국가들의 불경기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함.
- '13년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고, 서비스업 산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1.0%) 및 오더수주 감소로 인한 제조업(-3.3%)부진이 나타남.
- 상품교역에서는 수출(-2.1%), 수입(-3.1%)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규모가 증가(205억 달러 → 217억 달러)
- 실업률은 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환율은 소폭 강세, 물가는 0.1% 감소 기록

<스웨덴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3.0	1.3	1.5
실업률	7.8	8.0	8.0
물가상승률	3.0	0.9	-0.1
수출금액(증감률)	197.3(18%)	185.2(-6.1%)	181.3(-2.1%)
수입금액(증감률)	177.1(19.6%)	164.7(-7%)	159.6(-3.1%)
무역수지	20.2	20.5	21.7

자료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4년 경기전망

○ GDP 1.6% 성장 전망

- '13. 10월 기업의 오더수주와 산업생산 급락 후 11월에 경기가 바로 급반등하면서 12월 경기전망지수도 106.1로 급격히 호전됨(상반기 92 수준).
- '13년에 실시된 법인세 인하(26.3%→22%)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으로 GDP 성장률은 2.2%로 예상됨.

○ 재정건전성

- 정부부채는 GDP의 41.1%('13)→41.9%('14)로 약간 늘어날 전망이나, 재정수지는 -2.0%('13)→ -1.8%('14)로 0.2% 호전될 전망이다.
- 오는 9월 실시될 총선시 집권당과 무관하게 고용증대, 세제개혁, 부동산시장 유연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며, 민간소비(+0.3%)와 정부지출(+0.6%)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에 이어 '14년에도 250억 크로나(약 38억 달러)의 추가예산이 경기 부양을 위해 책정될 예정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등에 투자될 전망
- 한편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
 - * 물가관리가 잘 되고 있어 중앙은행은 금리를 '13. 12월 0.75%로 낮춘데 이어, '14년 초에 0.25% 추가 인하도 예상되며, 오는 '15년 초부터나 금리를 인상한다는 방침임.

○ 교역

- 수출은 0.6% 증가, 수입은 2% 증가, 무역수지 196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은 10% 가까이 줄어들 전망

○ 실업률

- 실업률도 8.0%('13)에서 7.7%('14)로 감소 예상

○ 소비심리

- '13년 말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14년 여름을 기점으로 회복될 전망

- '14년에는 개인소비, 공공소비, 공공투자 모두 전년대비 각각 2.1%, 1.8%,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12	'13	'14(전망)	'15(전망)
GDP	524.4	558.4	576.1	561.9
GDP 실질성장률	1.3	1.5	2.2	2.4
실업률	8.0	8.0	7.7	7.4
물가상승률	0.9	-0.1	0.0	1.7
수출금액	185.2	181.3	182.4	191.5
수입금액	164.7	159.6	162.8	177.6
무역수지	20.5	21.7	19.6	13.9

자료원 : EIU, 2014.4.16 기준 최신 수치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경기전망지수 호전

- '13년 실시된 법인세 인하(26.3%→22%) 효과가 본격 나타날 전망
-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테이퍼링 영향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스웨덴의 對신흥국 수출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II. 2014년 스웨덴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스웨덴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스웨덴은 고도의 공업국으로 공업 제품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
- 주요 산업으로는 엔지니어링(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철강, 정보통신 등), 화학(제약의료, 안료), 목재가공(목재가공, 가구제조, 제재, 목재포장, 목재 패널), 바이오·생명공학 등이 꼽힘.

□ 특징

- '13년 GDP 구성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수산업 1.4%, 광업 0.7%, 건설업 4.6%, 제조업 13.8%, 서비스업 45.5%, 공공부문 19.8%임.
 - * 공공부문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이 포함됨.
 - 서비스업 중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연구업 0.9%, 보건의료업 2.5%, 무역업 18.6%, 금융업 11% 순
-

<스웨덴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농업,어업, 임업	1.4	1.5	1.5	1.4
광업	0.3	0.8	0.8	0.7
제조업	13.5	14.8	14.4	13.8
전기,가스,난방	2.6	2.7	2.5	-
하수도	0.2	0.2	0.2	-
쓰레기처리, 재활용	0.3	0.3	0.4	-
건설업	4.5	4.6	4.5	4.6
서비스업	44.9	43.7	44.8	45.5
- 운송, 물류	2.4	2.3	2.3	-
- 우편통신	1.6	1.5	1.6	-
- 호텔, 레스토랑	1.3	1.2	1.3	1.3
- 금융, 보험	2.6	2.4	2.4	-
- 부동산, 대여	8.5	7.6	8.1	8.1
- 컨설팅	2.1	2.1	2.2	-
- 교육	0.8	0.8	0.9	0.9
- 헬스케어, 사회복지	2.2	2.3	2.4	2.5
- 문화, 공연	0.6	0.6	0.6	0.6
- 기타 서비스	0.7	0.7	0.8	0.8
공공부문	9.5	9.7	8.4	19.8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2014. 3월 기준 최신 수치)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에 대한 별도 자료가 없어, 각 산업별 창출부가가치 금액을 총 GDP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함.

□ 주요 산업

○ 엔지니어링

- 기간산업으로 남부 및 중부 지역, 북부 해안 지역에 생산시설이 집중 분포

- 수송장비, 기계, 전자, 금속 제품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ABB社(전자 기술)를 비롯, SKF社(베어링 생산), Electrolux社(가전), Atlas Copco社(광산 및 건설장비 제조), Volvo社, Scania社, Saab社(이상 완성차) 등이 대표 기업
- 최근 들어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스웨덴 진출이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쟁력이 탁월한 분야에 집중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하청업체들과의 협력으로 시장을 협력해가는 전략을 추구함.

○ 자동차 · 자동차부품

- Volvo, Saab, Scania 등 세계적 인지도를 자랑하는 브랜드의 본고장으로 일반 승용차를 비롯, 트럭 등 화물 자동차, 특수차량, 트레일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유
- 특히, 엔진 및 엔진부품, 차체(샤시), 의장(인테리어), 전자장치와 안전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 관련 제품들은 직접 생산하며 그 외 부품들은 수입에 의존
- '90년대 말 세계 자동차시장의 재편에 따라 경영과 생산라인 합리화를 위해 스웨덴 부품 공급업체가 대규모 글로벌 부품 공급업자들로 대체되면서 그 수가 대폭 감소함.
- 한편 승용차의 경우 Volvo社와 Saab社가 각각 중국 지리자동차와 NEV社(스웨덴-중국-일본 국제권소기업)에 매각되면서 스웨덴 승용차만이 갖고 있던 독특한 색채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평가됨.
- 최근 Volvo社는 요테보리 지역에 조립라인 신설을 계획 중이며, 지금까지는 유럽기업에 의존했던 조립라인 장비류 구매선을 아시아 기업으로 전환 모색 중

○ 철강

- 중부지방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철광석과 풍부한 수림에서 생산되는 연료를 활용하여 18세기부터 발달
 - 관련업체 수는 24개 그룹 60개사로서 고용인원만도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특수강 생산에 주력하며 업체별로 생산제품을 특화하고 있음.
 -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량의 약 80%를 수출하는 한편 국내 수요의 75% 정도를 수입함.
-

- * 국내 철강 생산량이 높은데도 수입량이 많은 이유는 고가의 특수강은 수출하고 저가의 단순 철강제품은 수입하기 때문
- 동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간 경쟁은 배제하고, 업체별로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일찌감치 추진함.
-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산 철강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 공구강, 고속도강, 저항전선, 볼베어링강, 비합금 고강도강, 분말야금 등이 있음.
- 정보통신
 - ITC 발달의 필요조건인 강력한 산업 기반, 다국적 고객 수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IT 활용, 인프라 발달, 활발한 기업 활동 등을 모두 갖춘.
 - Microsoft社를 비롯 Intel社, Nortel Networks社, Andersen Consulting社, IBM社, Hewlett-Packard社, Sun Microsystems社, Nokia社 등의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스웨덴에 진출해 있음.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자동차부품산업

□ 최신 동향

- 수요 증대
 - 자동차시장 회복으로 완성차 및 AS용 자동차부품의 수요 증가가 기대됨.
 - '10년 중국 지리자동차에 매각된 Volvo社의 판매실적이 최근 개선되고 있고, '15년까지 신모델 3종을 출시할 예정으로 관련 부품 수요 증가할 전망
 - 경영난으로 승용차 생산을 중단했던 SAAB社도 '14년 중 자동차 생산을 소규모로 재개하고 '15년에는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부품 수요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
- 원가절감 압박
 - 완성차용 부품의 최대 소비자는 Volvo社, SAAB社, Scania社임.

-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등 유럽 부품을 선호하던 완성차업체들은 원가절감 압박이 지속되면서 공급선 전환을 심도 있게 고려중인데, 현대,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의 호조세를 뒷받침하는 한국 부품업계를 신규 공급선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산 AS용 부품 수출은 한국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데, 현재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전문가 진단

- Volvo 승용차(각종 자동차부품)
 - '07년 연간 판매 45만대를 기록하던 동사의 판매량은 '09년 33만대로 감소했다가, '13년에 42만대로 회복세에 돌입
 - 자동차시장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확대될 전망이다 가운데, 원가절감 압박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공급선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한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성을 타진 중임.
- FKG(자동차부품유통업자협회)
 - 경기회복으로 자동차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완성차 및 각종 자동차부품 수요 역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14년 전망 : 밝음

-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및 부품 수요 증가로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현대,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 선전에 따른 한국 부품업체 인지도 상승
 - 원가절감을 위한 완성차업체들의 신규 공급선 검토 분위기 확대
-

□ 수출 유망품목

○ 기어박스(MTI 7420)

- 자동차용 기어박스 시장 규모는 연간 6.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요 전망을 수입에 의존
- 최대 고객인 완성차업체들의 유럽산 선호 성향이 악화되면서 공급선 전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그간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한국산 자동차 판매 급성장에 힘입어 한국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 프레스금형(MTI 7420)

- Volvo社의 경우 '10.3월 승용차부문 경영권을 지리자동차에 넘긴 후 다량의 프레스금형을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나, 중국기업들이 동사의 품질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한국산 프레스금형에 대해 인식이 좋지는 않았으나 한국부품의 품질과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 오일필터(MTI 7420)

- 스웨덴의 연간 신차 등록대수는 27만대 수준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500만대, 현지인들의 오일필터 교환 주기가 통상 1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연간 오일필터 수요는 500만개 정도로 추산됨.
- 오일필터의 국내 생산은 50%로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 규모는 1억 1,000만 달러로 꾸준한 수입 수요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나. 건설업

□ 최신 동향

○ 건설경기 회복

- 유럽재정위기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건설경기가 '13년부터 살아나고 있으며,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특히 경기침체로 보류되었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14년부터 재개될 예정으로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14년, '15년 건설업 증가세는 각각 5%와 2%로 전망되며, 특히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설경기 확대에 각종 건설장비 및 기자재 수요 증대가 예상됨.

□ 전문가 진단

○ Sveriges Byggindustrier(스웨덴건설업협회)

- 스톡홀름, 요테보리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14년 건설 부분은 5%의 성장이 기대됨.
- 이에 따라 각종 건설장비 및 기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Bygma(바이어/각종 건설기자재)

- 목재, 철강을 비롯 각종 내외장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전망 : 밝음

○ 민간부문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건설 활기

- 최근 들어 대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 스톡홀름, 요테보리 등 대도시와 옅살라와 같은 대학도시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전망
- '14년 신축 아파트 규모는 총 31,000채로 '0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 건설 증가

- 스톡홀름 소재 카롤린스카 병원의 유럽 최대 연구센터 신축, 국립 실내체육관 주변 대형 쇼핑몰 등 상권 조성, 요테보리 지역의 멀티 스포츠센터 신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건설업 총 투자 중 인건비와 전자재 부문이 각각 40%씩을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기계 운송기기 등 건설장비가 차지

□ 수출 유망품목

- 건설장비(MTI 7251)
 -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그레이더, 아스팔트 포장기, 롤러, 적재기 등
 - 관련 바이어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납기가 짧은 유럽산을 선호함.
 - 그러나 최근 들어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일본산과 한국산 수입이 소량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품질과 내구성을 높이고 유럽 내 물류창고 이용으로 납기일을 줄일 수 있다면 틈새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각종 건축자재 (MTI 6900)
 - 건설경기 회복으로 철강판 및 각종 내외장재의 수요 증가 전망
 - 전자재 부문에서는 원자재 값이 폭등한 전기자재와 배관 및 철강자재를 노려볼 만 함.
 - 발전전력의 송전 및 배전용 초고압전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보건·의료산업

□ 최신 동향

- 스웨덴은 기초연구, 임상치료 및 개발, 제품 등록, 생산·마케팅 등 전 의료분야에서 요구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시장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산업을 보유하게 됨.
- 주요 발명품으로는 심장박동조절장치, 인공호흡기, 인공신장, 감마나이프²⁾ 등이 있음.

- 반면, 혈당계, 혈압계 등 소형 자가진단장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는 지방정부 단위의 공공입찰을 통해 구매해 왔으나 최근 웰빙 트렌드에 따라 건강제품 취급업체를 통한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

□ 전문가 진단

○ 스웨덴당뇨협회

- 스웨덴의 당뇨병 환자 수는 약 40만 명으로 매년 약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혈당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
- 한편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 혈당측정기를 가정에 구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스웨덴 심폐펀드(Cardiovascular Lungfonden), 스웨덴 심폐구조위원회(HLR-radet)

- 현재 매일 10~20여개의 심장제세동기가 추가 비치되는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전망: 밝음

- 소형 자가측정 장비 및 응급조치 기기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매년 당뇨병환자 수 큰 폭으로 증가

- 자연적인 환경이나 부모로부터의 유전적 요소가 강한 당뇨병환자보다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후천적 당뇨병환자수가 증가하면서 혈당계 수요도 동반 성장

○ 스웨덴에서는 하루 평균 20건의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구할 확률이 70%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공공장소에 심장제세동기 비치를 확대 중임.

2)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Gamma Knife Radiosurgery)은 머리를 절개하는 뇌수술과는 달리 파장이 짧은 감마선을 병 부위에 쬔으로써 종양이나 혈관기형 등을 제거하는 방사선 수술법

□ 수출 유망품목

○ 혈당계(MTI 9031)

- 당뇨병환자 수는 전체 국민의 3.6%인 약 40만 명이며 혈당계 시장규모는 400만 달러 내외로 당뇨병환자 증가로 점증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생산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3 1~10월 혈당계 총 수입액은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심장제세동기(MTI 9020)

- 현재 스웨덴 전역에 비치된 심장제세동기는 약 7,000여대로 '13년 한 해 동안 비치한 수량만도 4,000개에 달함.
- 관련기관에 따르면, 매일 10~20여개의 제세동기가 새로 비치되면서 수요 증가

라. 보안장비산업

□ 최신 동향

○ 보안장비시장 확대

- 스웨덴에서는 오랫동안 무인 동영상 녹화시스템 설치규제가 까다로워 보안 카메라를 비롯한 보안감시시스템의 확산이 제한적이었음.
- 1998년 보안카메라 설치 법안이 개정되면서 택시에 대한 보안카메라 설치 허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비롯, 학교, 법정에까지 설치가 확대됨.
- 특히, 학교 폭력 증가와 기물파괴, 중형 죄수자 들의 탈옥 등 강력사건 증가, EU 확대에 의한 약물 및 무기 소지자들의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어 보안 장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전문가 진단

○ Axis Communications (바이어/감시카메라)

- 보안장비의 적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임.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빠른 동작과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물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HDTV 제품이 인기임.

- G4S (바이어/보안업체)

- 보안장비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높음.

□ 2014년 전망 : 밝음

- 시장 확대로 보안장비제품 수요 증대 예상

□ 수출 유망품목

- CCTV(MTI 8521)

- 스웨덴의 CCTV 등 보안시설장비 제품 시장규모는 연간 350~4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으로 이루어짐.
- 국내 생산은 글로벌 리더 격인 AXIS Communication社가 주로하며, 동사 연 매출액 600만 달러 중 약 30%가 내수 판매로 알려짐.
- 정부기관 및 특수시설 위주로 설치되던 CCTV가 학교, 법정, 택시와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은 물론 일반 매장과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설치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최근 들어 HDTV 및 PTZ 영상감시가 합쳐진 올-인-원 카메라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IR조명과 원격 줌&초점 기능이 탑재된 고정형 돔 카메라의 인기도 높은 편임.
- 중국과 일본제품의 관세율은 13.9%인 반면 한국은 한-EU FTA 체결로 관세가 6.9%로 인하³⁾된 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임.

3) 한-EU FTA 발효에 따라 기존 13.9%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며 현재 6.9%까지 낮아진 세율이 '14.7.1일부터는 4.6%로 더 낮아짐.

[이탈리아]

I. 2014년 이탈리아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재정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 유럽 재정위기 본격화로 인해 2011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작
 - 이탈리아 수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권 전체로 확산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2년에도 -2.5% 성장률 기록
 -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에도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2013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 -1.1%에 미치지 못하는 -1.9%로 집계됨.
 - OECD는 2013년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발표
-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부채
 -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국가부채를 들 수 있음.
 -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국가부채를 들 수 있음.
 -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GDP 대비 120.7%에서 2012년 126.5%, 2013년 132.7% 기록
- 수입수요의 감소로 불황형 흑자 발생
 - 2011년 276억 유로 수준의 무역적자 발생
 - 2013년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국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입 역시 급감하면서 불황형 흑자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난
 - 2011년 하반기 이래 경기침체와 2012년 노동법 개정⁴⁾ 및 정년퇴직 연장으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4) 이탈리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2012년 노동법 제18조를 개정함.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 해고가 불가능했으며 해고 노동자가 법원 소송 승소 시 복직이 의무화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고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의 하에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013년 실업률은 당초 예상치인 11.7%를 넘어 12.7%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난에 빠짐.
-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청년실업률은 2014년 1월 기준 42.4%에 달해 2007년 1월(20.9%)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

- 물가상승률은 2011년 2.9%, 2012년에는 3.3%를 기록함.
- 2013년 물가상승률은 1.3%로 집계되었으며, 다수의 EU 국가에서 저물가 추세가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탈리아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2011년	2012년	2013년
GDP 성장률	0.5	-2.5	-1.9
재정적자(GDP 대비)	3.8	3.0	3.0
공공부채(GDP 대비)	120.7	126.5	132.7
수출금액(증감률)	373,206(+11.45%)	387,174(+3.74%)	386,929(-0.06%)
수입금액(증감률)	400,817(+9.23%)	379,629(-5.29%)	358,797(-5.49%)
실업률	8.4	10.6	12.3
물가상승률	2.9	3.3	1.3

자료원: Eurostat

□ 2014년 경기전망

○ GDP

- 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과 OECD는 각각 0.7%, 0.6%로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보임.
- 신용평가기관 S&P는 유럽 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나, 이탈리아는 느린 회복을 보일 것으로 평가하며 0.4%의 성장률을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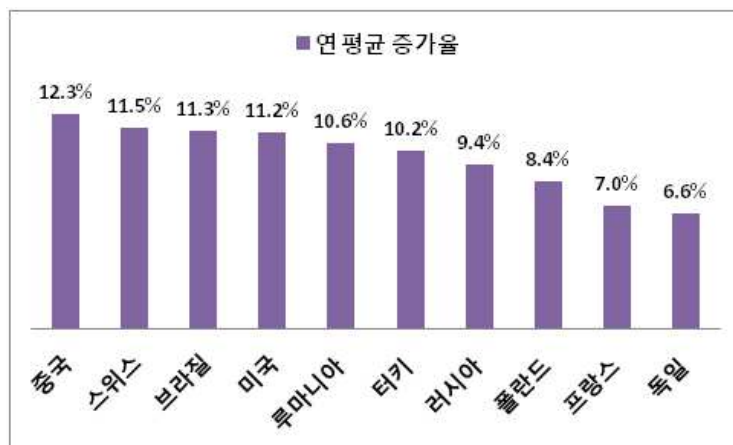
○ 재정건전성

-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21%→22%)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0억 유로 이상의 세수 확대가 전망됨.
- 또한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하여, 우체국(Poste Italiane) 지분 40%, 항공교통관리공사(Enav) 지분 40%를 민간기업에 매각 예정

○ 수출입, 무역수지

- EU, 미국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수출은 전년대비 3.9% 증가가 예상되며, 2016년에는 약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수출의 증가세는 최근 10년간 이탈리아 기업들이 추진한 수출지역 다각화에 따른 신규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SACE)의 분석에 따르면 2013~2016년 호조를 보일 시장에는 중국, 브라질, 루마니아, 터키 등 신흥국 뿐 아니라 스위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성숙 시장도 포함됨.

<2013~2016년 이탈리아 수출 호조 대상국 현황>



자료원: Istat

○ 실업률

- 정부는 청년 창업을 통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12년 9월 유한책임회사 형태⁵⁾로 법

5) 35세 미만 청년의 경우 단순유한책임회사(Srls,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semplificata), 소자본 유한책임회사(Srlor,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a capitale ridotto) 형태의 도입으로 자본금 1유로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짐.

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신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업률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이며 이탈리아 통계청은 2014년 실업률을 전년대비 0.3% 감소한 12.4%로 전망하고 있음.

○ 기업투자

- 장기불황과 극심한 내수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나, 유럽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GDP 대비 부채비율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
-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나, 이탈리아의 고질적 문제인 복잡한 행정절차가 투자유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14)’에서 이탈리아는 65위를 기록한 바 있음. 특히 건축허가 취득(112위), 신용(109위), 조세 부담(138위), 계약이행(103위) 등 행정 관련 부문에서 부진
- 이에 정부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Destination Italy(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를 2014년 2월 19일 법제화함.
 - * 동 법에는 이탈리아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는 투자자나 대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 절차 간소화, 5년간 세제 혜택, ‘Invest in made in Italy’ 펀드 창설, 부동산 용도변경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계획 등이 포함됨.

○ 소비심리

- 부가가치세가 2013년 10월 22%로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낮아진 가계 구매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유가도 상승(휘발유 1리터당 1.5센트, 디젤 1.4센트 상승)하여 가계의 연간 추가 부담이 120유로에 달할 전망
- 2014년 식품분야와 비식품분야 모두에서 각각 0.5%, 6.5%의 소비 감소가 예상되나, 스마트폰 등 ITC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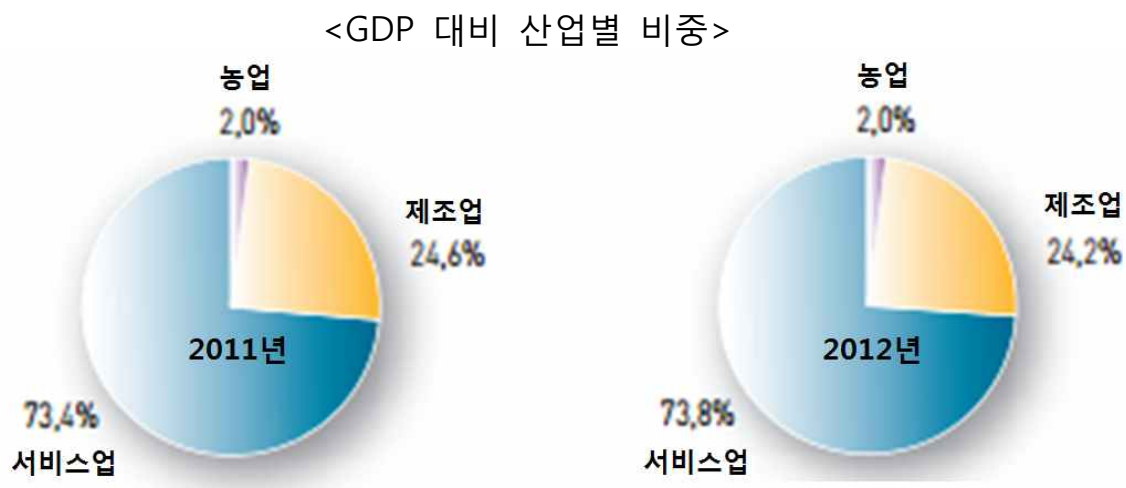
- 수출 증가와 내수시장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관건
 -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는 2013년 말부터 경기회복세가 나타나 2014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이에 부응하듯 2013년 11월 산업생산이 1.5% 증가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12월 산업생산은 다시 0.7% 하락함.
 - 이로써 2013년 산업생산은 평균 3% 하락하였으며, 12월 기업대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며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4년에도 해외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기업이 생존할 것이며, 내수 진작 없이는 0% 성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의 최대 불안요소는 정치 불안정
 - 재정위기 이후 2011년 11월부터 베를루스코니, 마리오 몬티, 루이지 베르사니, 엔리코 렌타, 마테오 렌치까지 2년 3개월 동안 총리가 4번 바뀌었을 정도로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은 심각한 수준
 - 동 기간 동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개혁안이 마련되고 세금인상 및 예산 삭감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개혁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잦은 정권교체로 인해 개혁 방안의 향후 행방도 불투명한 상황
 - 마테오 렌치 신임 총리가 등장하며 구태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연정 붕괴 및 민주당 분열 가능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잦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하락은 2014년 경기회복의 최대 불안요소로 지목됨.

II. 2014년 이탈리아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이탈리아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지속적인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
 -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제조업은 매년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 추세
 - 2012년 기준, 농림수산업은 GDP 대비 2%, 제조업은 24.2%, 서비스업은 73.8%를 차지함.
 - 산업별 고용 비중은 서비스업이 69.4%로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제조업 18.1%, 건설업 7.5%, 농업 5.0% 순



자료원: Inea

<이탈리아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내총생산	100	100	100

농업, 어업, 수렵	-	-	2.0
광업	0.3	0.3	0.3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시설	2.4	2.5	2.5
건설업	6.1	6.1	5.9
제조업	17.1	16.2	15.5
- 내구재	15.3	14.4	13.7
. 목재제품	-	1.1	0.9
. 비금속광물제품	0.8	1.5	1.4
. 1차 금속, 가공금속제품	3.0	2.9	2.7
. 섬유, 의류, 가죽	1.9	1.5	1.4
. 기계류	2.5	2.3	2.2
. 컴퓨터 및 전자제품	-	0.6	0.8
. 전기기기 및 부품	1.9	0.8	0.8
. 자동차 및 부품	1.0	0.9	0.8
. 화학 제품	1.2	0.6	0.6
. 가구 및 관련제품	-	1.7	1.6
. 기타 제조업	0.9	0.5	0.5
- 비내구재	1.8	1.8	1.8
. 식품, 음료 및 연초제품	1.8	1.8	1.8
<이하 생략>			
서비스	74.2	74.9	73.8
. 도소매업	11.3	11.1	10.9
. 호텔, 레스토랑	3.9	4.2	4.2
. 운송, 물류 유통	7.4	5.8	5.6
. 정보	-	4.4	4.1
. 금융	5.0	5.5	5.3
.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	8.7	9.0
. 부동산	-	14.1	14.1
. 기타 서비스	-	21.1	20.6

주: 산업 세부분류는 최신 자료인 2013년판 기준 작성

자료원: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 특징

○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

-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의 99.9%를 차지하며, 특히 10인 이하 초소형 기업이 전체의 94.5%를 차지
-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0.3%로 유럽 평균(67.4%)을 상회하며, 부가가치 생산에서도 68.3%를 차지할 정도로 이탈리아 산업의 핵심임.

<2012년 이탈리아와 EU27개국 중소기업 현황 비교>

	기업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 생산		
	이탈리아 (개, %)		EU27 (%)	이탈리아 (명, %)		EU27 (%)	이탈리아 (10억 유로, %)		EU27 (%)
초소형	3,491,826	94.4	92.1	6,930,947	46.1	28.7	185	29.8	21.1
소형	183,198	5.0	6.6	3,236,764	21.5	20.4	136	21.9	18.3
중형	19,265	0.5	1.1	1,861,089	12.4	17.3	101	16.3	18.3
중소	3,694,288	99.9	99.8	12,028,799	80.0	66.5	422	68.0	57.6
대형	3,196	0.1	0.2	3,013,012	20.0	33.5	198	32.0	42.4
전체	3,697,484	100	100	15,041,812	100	100	620	100	100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

- 2차 대전 이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소기업이 등장하면서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
- Varese 지역의 면직물, Biella 지역의 모직류, Ascoli Piceno 지역 및 Verona, Vigevano 지역의 제화, Carpi 지역의 니트 소재, Treviso 지역의 여성의류, Como 지역의 실크류 등이 대표적임.
- 이들 클러스터는 기업, 산업협회, 지역 중소기업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쓰고 있음.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철강

□ 최신 동향

- 이탈리아에는 약 42개 철강 생산 공장이 있으며 2012년 기준 철강 생산량은 약 2,730만 톤

<이탈리아 철강생산 현황>

(단위: 백만 톤, 개)

연도	철강생산량	철강생산공장
1990년	25.5	68
1995년	27.8	54
2010년	25.8	42
2012년	27.3	42

자료원 : Federacciai

- 철강제품의 2013년 대외 수출 은 총 1,6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43% 하락한데 반해 수입은 1,560만 톤으로 +12.4% 증가

- 2013년 1월 발생한 이탈리아 철강업체 일바(Ilva) 사태로 인한 철강 수급난으로 수입량이 급증

- * 남부 폴리아냐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철강공장 일바(Ilva)가 유독물질 배출 논란에 휘말림. 법원의 폐쇄 명령에 대해 정부의 공장 회생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산 및 경쟁력은 저하됨.

□ 전문가 진단

- Antonio Marcegaglia(철강제조그룹)

- 이탈리아 철강산업은 Re-roller 기술⁶⁾ 및 프로세서⁷⁾ 부문에 강한 반면 경

6) 강판을 고온에서 압연하는 기술

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공급과잉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 반면, 한국 등 경쟁국들은 강력한 산업기반과 함께 수출 판매망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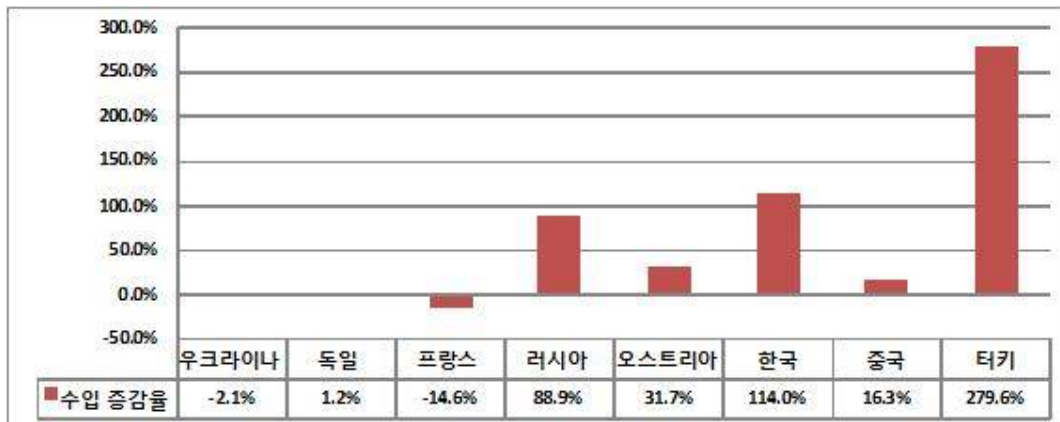
□ 2014년 전망 : 보통

- 현지 철강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철강재 수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
- IMF에 따르면 2014년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은 0.6%로 전망
 -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소폭 회복세로 돌아서며 철강재 소비량도 제한적인 증가를 보이며 전반적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대두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일바제철소 폐쇄 논란으로 철강 생산이 주춤한 동안 해외 주요업체들이 이탈리아 철강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에 따르면 EU 역외 주요 철강 생산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 2013년 1분기 EU 역외권 철강 수입은 총 61만 9,400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46.5%가 증가한 반면에 對EU 국가 수입량 60만 7,400 톤은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에 그침.
 - * 터키(280%), 인도(176%), 한국(114%), 러시아(89%) 등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지 철강 제조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2013년 1분기 이탈리아 철강 수입 대상국별 증감율>



자료원: Federacciai

주 : 전년동기 대비

□ 수출 유망품목

○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MTI 코드 6132, 6133)

- 2013년 11월 기준 판재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0.6% 상승
- 2014년 1월 기준 신차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정부의 환경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일바제철소 사태로 현지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철강제품 중 고부가 강재인 동 제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나. 신재생에너지

□ 최신 동향

- 이탈리아는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
 -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 의존도(약 40%)가 가장 높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국내 전력수요의 30%를 충당
 - 국내에 원전 시설이 없는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로부터 전자력 에너지를 수입 하고 있으며, 2011년 1.9%였던 원자력의 비중은 2012년 4.8%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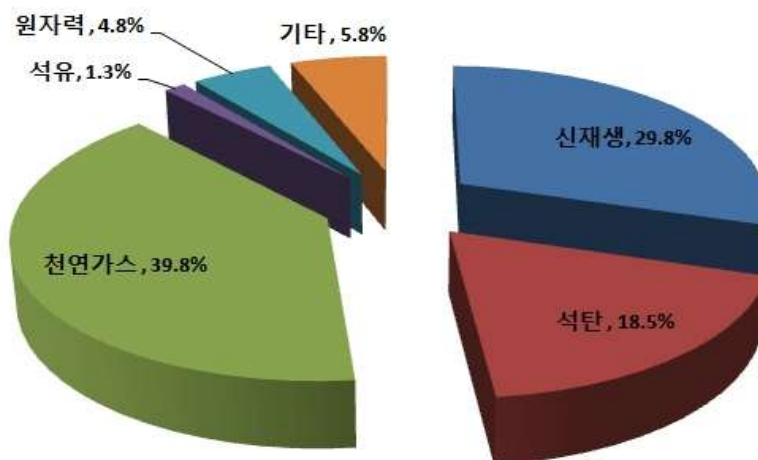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는 전년대비 다소 주춤했는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인센티브가 삭감된데 따른 투자 축소가 주요 원인임.

<이탈리아 전력생산 에너지원 구성표>

구 분	신재생	석탄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기타
2011년	35.2%	14.9%	40.6%	1.3%	1.9%	6.1%
2012년	29.8%	18.5%	39.8%	1.3%	4.8%	5.8%

자료원: GSE

<2012년 이탈리아 전력생산 에너지원 구성>



자료원: GSE

- 2012년 전력 수요는 약 3,282억kWh로 이중 86.9%를 국내에서 생산
 - 국내 생산 규모는 약 2,851억kWh로 나머지 431억 kWh는 해외 수입

□ 전문가 진단

- APER(이탈리아 신재생에너지 협회)
 -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세금 면에서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 과거 이탈리아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데는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투자를 철회하는 외국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잦은 법안 변경과 행정절차의 복잡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꾸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법안 안정화가 필요함.

○ Luca Zingale(녹색 에너지분야 전시책임자)

- 과거 태양광패널 및 풍력발전 붐으로 인해 녹색에너지 분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더딘 상황
- 그러나 녹색에너지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50%의 세금공제 혜택과 더불어 여전히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등은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상업 및 산업분야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법안 안정과 더불어 IT분야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을 지속해 나간다면 동 분야는 2017년 이내 150%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전망 : 보통

○ EU의 '에너지 기후 변화 2020'

- EU는 2007년 '에너지 기후 변화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확대하며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20%를 개선할 것이라 발표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짐.

○ 집중 투자에 따른 조기 목표 달성

-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침(Directive for Renewable Energy)을 통해 국가별 경제상황을 감안한 목표치가 부과되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1차 에너지 수요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7%로 충당한다는 목표가 부과됨.
- 이에 대해 2012년 기준 전체 전기소비량의 27.5%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함으로써 약 8년 앞당겨 목표 달성

-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와 조기 목표 달성에 따른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FIT) 대폭 삭감은 관련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3년 유럽 내 수요는 약 12GW로 전년대비 26% 하락
- 특히 이탈리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었던 태양광시장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보조금 축소와 공급 과잉으로 극심한 불황기에 있으나,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⁸⁾에 도달하게 되는 2014년 이후 경쟁력을 회복할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이탈리아의 전력생산 비용은 프랑스의 두 배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원전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6월 원전 재개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결과, 94%에 달하는 이탈리아 국민이 원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옴.
 - 이후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에 주력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정부는 차량, 가정용 기기 및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전망

□ 수출 유망품목

- 소형 풍력터빈(MTI 841110)
 - 세계 소형 풍력발전 시장은 재정위기, 허가제도 등 관련 법규 불확실성, 인증과 요금상계제도 미비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7~8년간 약 5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의 경우 '12년 기준 356여개의 소형 풍력발전소가 설치되었으며 발전 용량은 18.2MW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농업 분야에서 큰 수요가

8)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에너지와 같아지는 지점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가 낮은 관계로 기존 태양광 투자자들이 소형 풍력발전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 소형 풍력발전은 전기가 부족한 지역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인센티브가 20년간 보장된다는 점에서 투자 유망대상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이탈리아 소형 풍력발전 보조금>

설치용량	생산량 (2000시간기준)	보조금	연간 수익
10kWp	2만kWh	291유로/MWh	5만~7만유로
50kWp	10만kWh	268유로/MWh	15만~30만유로
200kWp	40만kWh		45만~60만유로

자료원: Qualenergia

다. 자동차부품

□ 최신 동향

- 환경정책 강화로 친환경 자동차부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 EU의 환경정책 강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관건이 됨에 따라 관련 부품에도 친환경 컨셉이 강화됨.
 - EU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능동적인 안전기술과 I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A/S 부품시장의 확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자동차 시장의 불황과 더불어 신차 변경주기가 0.3년 증가한 8.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A/S등 유지보수에 따른 부품시장의 매출 증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문가 진단

○ ANFIA(자동차 조합)

- '14년 유럽 자동차 시장은 주요국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6년간의 부진 끝에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14년 1월 자동차시장 성장률 : 영국·스페인 7.6%, 독일 7.2%, 이탈리아 3.2%, 프랑스 0.5%
- 경제위기를 통해 산업이 재구성되는 동안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보호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시킴으로써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음.
-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쟁력 향상으로 이러한 회복세를 지속시키도록 안팎으로 노력이 필요

□ 2014년 전망 : 밝음

○ '14년 자동차부품 시장, 완만한 회복세 돌입

- 자동차부품 시장규모는 '13년 하반기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3분기 기준 68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2% 증가하였으며 '14년에도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

<이탈리아 자동차부품 수출입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시장규모	증감율	시장규모	증감율	시장규모	증감율
시장규모 및 성장률	10,742,299	6.63	8,759,764	-18.45	9,192,136	4.93

자료원 : Eurostat

□ 특이사항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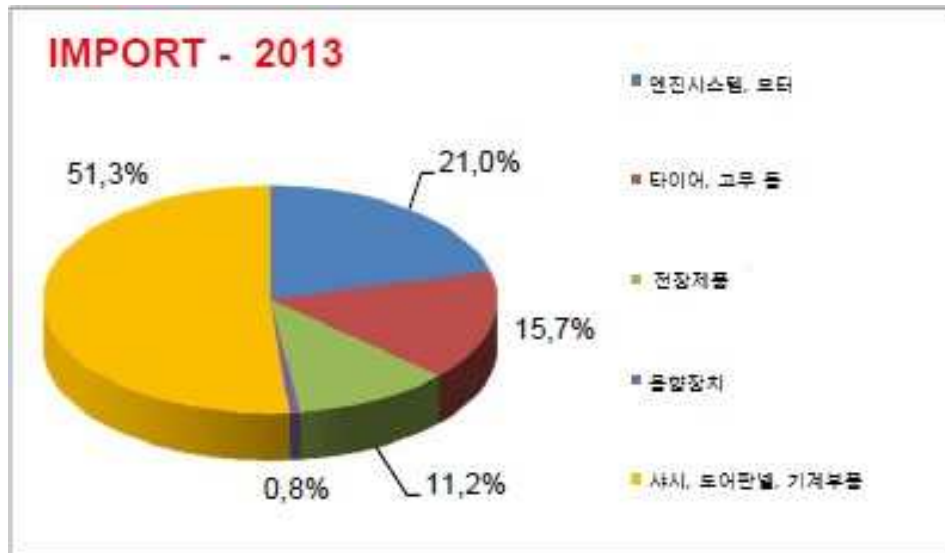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에도 친환경 정책 강화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 * EU는 '20년까지 자동차 1대당 CO₂ 배출량을 95g/km로 낮추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

○ 완성차 뿐 아니라 A/S 부품에도 환경 규정에 따른 부품 공급 필요성 대두

-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A/S제품 공급시 시장 확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13년 품목별 수입동향>



자료원: Anfia

□ 수출 유망품목

○ 전장제품(MTI 7420)

- 능동적 안전기술과 IT기술을 자동차부품에 활용함으로 네트워크와 연결된 솔루션이 탑재된 지능형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타이어(MTI 3203)

- 對韓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산에 최근 트렌드로 부상하는 고성능 친환경 그린타이어 라인이 구비될 경우 시장 확장이 기대됨.

라. ICT

□ 최신 동향

○ 확대되는 시장규모, 낮아지는 가격

- ICT 시장 규모는 '10년 1%, '11년 1.7%, '12년에는 전년대비 6.6%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기준 시장 가치는 오히려 '11년 6.9%, '12년에는 1.1% 감소
- 이는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중국산 보급형 저가제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균 제품가격은 '11년 8.4%, '12년에는 7.2% 하락함.

<ICT 제품 시장 규모 및 가치 증감률>

(단위 : %)

	Volumi 규모	Prezzi 가격	Valori 가치
2010	1,0	5,1	6,2
2011	1,7	-8,4	-6,9
2012	6,6	-7,2	-1,1

자료원 : GfK, ISTAT

○ 태블릿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13년 3분기 기준 노트북 총 판매대수는 59만 7,000대로 전년대비 13.5% 하락한 반면, 태블릿은 90만대로 22.1% 증가하며 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진단

○ Netconsulting(ICT 전문 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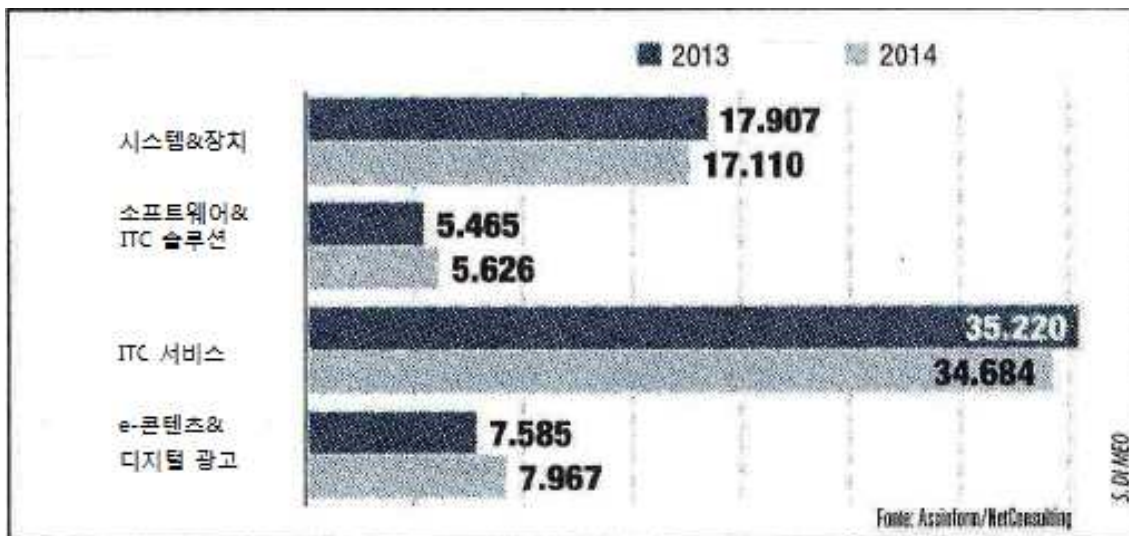
- 클라우드 붐으로 이탈리아는 오래된 소프트웨어와 PC를 벗어나 새로운 ICT 도약의 시기에 있음. 그러나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의 특성상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

□ 2014년 전망 : 보통

- '14년 ICT 시장은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실질적으로 수출입이 이뤄지는 시스템 및 장치⁹⁾와 ICT 서비스¹⁰⁾ 분야는 전년대비 각각 4.5%, 1.5%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하드웨어 및 부품 수출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소프트웨어 및 ICT 솔루션¹¹⁾이 전년대비 2.9%, e-콘텐츠 및 디지털 광고 분야가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언어 차이와 기존 시스템의 상이함으로 관련 분야 현지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ICT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Assinform/Netconsulting

* 주 : '14년은 예상치

9) 컴퓨터의 기기구성 및 다른 기능 단위와 접속하여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10) ICT와 다른 종류의 기술 결합을 통해 기존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수요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원격진료와 같이 기존산업에 네트워크 기반 지능적 원격제어관리 기능 부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성능 개선

11)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를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파일형식, 회사, 상표명, 운영체제 등을 일일이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이탈리아 ICT 시장의 특성은 시장의 범위가 넓으며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
 - PC와 태블릿, 피쳐폰과 스마트폰 시장이 공존하며 다양한 시장을 형성
 - 신규 기기 구매비율이 타 유럽국가에 비해 높으며 혁신적인 기능에 대한 적응도 역시 높은 반면, 노인인구가 많은 특성상 시스템 변화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선호
- 경기회복과 더불어 '15년 밀라노 엑스포 준비로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됨.
 - 중소기업에서는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 SAP 등 최신 소프트웨어 설치가 시급하나, 초기 투자비용 문제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황
 - 업체 특성에 맞는 B2B 서비스 팩이 강화될 경우 소프트웨어와 ICT 솔루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유망품목

- 태블릿(MTI 813110)
 - ICT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선 태블릿이 속도, 휴대성과 기능성을 무기로 노트북 시장을 잠식하며 시장이 더욱 확장될 전망
- 스마트폰(MTI 812130)
 - 다양한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 개발로 현지시장 선점에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인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및 보급형 모델 확대로 당분간 한국제품의 선전은 계속될 전망

마. 화학섬유

□ 최신 동향

- EU 2위에 해당하는 시장규모
 - 이탈리아 화학섬유 시장은 독일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 규모
-

-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화학섬유 시장은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11년과 '12년에 각각 6%, 16.7%의 감소를 보였으며, '13년의 경우 '09년 수준인 11억 달러 규모를 회복

<이탈리아 화학섬유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화학섬유	1.4	27.27	1.32	-6	1.1	-16.67

자료원: Federchimica

□ 전문가 진단

- Rosmery Lagalla(패션 및 섬유산업 분야 기자)
 - 경제위기로 인해 섬유·의류 시장 또한 위축되었으나 다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
 - 특히 기술집약적인 화학섬유 분야는 보온성 강화 및 신축성 향상 등 기능성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여 발전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

□ 2014년 전망 : 보통

-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산업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모직, 실크 등 고가의 천연섬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성섬유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지난 2년간 최악의 불황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시장 축소에도 수요가 꾸준해 다른 산업에 비해 타격을 덜 받음.
 - 경기회복이 기대보다 지연되어 팔목할 만한 시장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EU 역외 기업은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바이어 접촉 필요

-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기업은 B2B 거래를 통해 섬유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 섬유 전시회 Milano Unica의 경우 역외 국가의 참여가 불가능함.
 - 따라서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은 직접 타깃 기업에 접촉을 시도해야 하며, 현지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복수의 바이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 브랜드와의 거래를 통한 해외진출 발판 마련
- 이탈리아 패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며 다양한 소재 및 색상별로 소량 주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주문 특성으로 인해 거래 초기에 대규모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까다로운 이탈리아 기업과의 거래 경험은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하므로 다른 지역 바이어와 거래시 효과적인 홍보 도구로 활용 가능
 - 따라서 소량의 주문일지라도 향후 거래 확대 및 다른 수출 대상 기업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유망품목

- 나일론 직물(MTI 434200)
- '11년 나일론 직물 수입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486만 달러를 기록함.
 - 내수시장 냉각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12년 19.16%나 감소하였으나 '13년 약 6.16%의 수입 증가를 시현하며 타 산업에 비해 선전했음.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14년에는 지속 증가할 전망

<이탈리아 나일론 직물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수입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수입규모 및 성장률	44,863	10.28	36,268	-19.16	38,504	6.16

자료원: Eurostat

- 폴리아미드단 섬유(MTI 411100)

- 동 품목 수입은 '11년 전년대비 48.09% 증가한 98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2년에는 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8.96% 급감
- 그러나 '13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의 부활과 더불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약 382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4.58%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14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탈리아 폴리아미드단 섬유 품목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수입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수입규모 및 성장률	9,884	48.09	3,068	-68.96	3,822	2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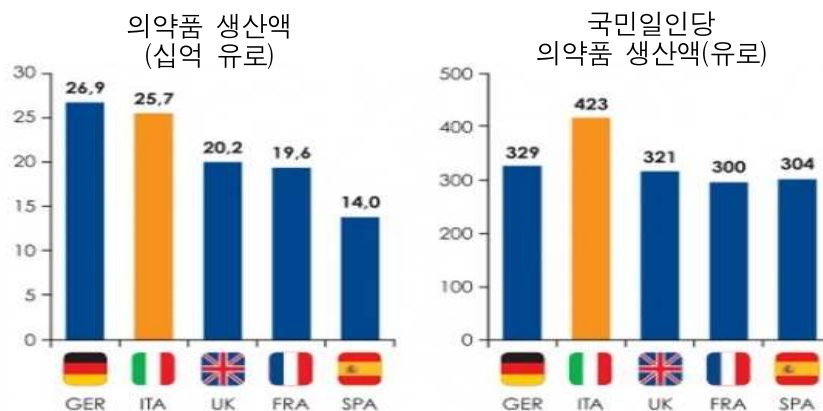
자료원: Eurostat

바. 의료/제약

□ 최신 동향

- 이탈리아는 세계 5대 의약품 시장으로 '12년 기준 260억 유로 규모
- 유럽에서는 독일과 함께 2대 의약품 생산국이며 1인당 생산액 기준으로는 최대 생산국
 - '12년 기준 생산액 257억 유로, 국민 1인당 생산액은 423 유로
 - 또한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은 유럽 최다

<이탈리아 vs EU 주요국 의약품 생산 비교>



자료원: Farmind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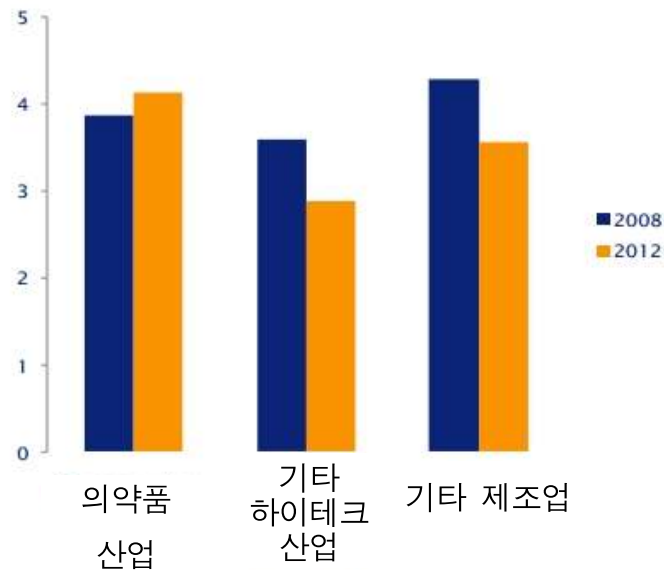
<이탈리아 의약품 산업 현황>

생산공장	종업원 수	평균 학력	R&D 인력	생산액	투자액
174개	6만 3,500명	전체 종업원 중 90%가 고졸/대졸	5,950명	260억 유로	24억 유로 (R&D와 생산에 각각 50% 투자)

자료원: Farindustria

- 또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 산업의 경우 해외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의약품 산업은 유일하게 점유율이 증가함.

<이탈리아 의약품 vs 타 산업 해외시장 점유율 비교>



자료원: Farindustria

- 이탈리아는 꾸준한 R&D 투자의 결과로 뛰어난 의약품 제조 원천기술을 보유
 - '12년 기준 의약품 산업 R&D 투자 규모는 약 25억 유로 수준
- 대부분의 현지 의약품 기업들이 수익을 R&D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비중은 전체 산업의 9.1%를 차지
 - 이는 타 제조업 연구인력 비중(1.6%)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
- 최근 10년간 이탈리아 의약품 기업은 1999년 이래 해외 관련업체 인수를 40건

진행하면서 전 세계 약 280개 판매망을 확보,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함.

- 현지 대형 의약품 업체 매출의 60%는 해외에서 발생하며 이는 타 제조분야의 두 배에 달함.

□ 전문가 진단

○ Doxapharma SpA(제약산업 전문 조사기관)

- 경제위기로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수요는 침체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현지 제약업체들이 높은 R&D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따라서 이태리기업과 해외업체간의 합작 등의 협력도 활기를 띠 전망

□ 2014년 전망 : 밝음

- 이탈리아 제약 분야는 '07~'12년 수출이 약 44% 증가했으며 해외업체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제약산업은 정밀기기, 포장기계, 식품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으로 꼽히며,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편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일부 한국 제약업체가 현지법인을 설립해 의약품 수출 교두보 및 생산, 판매, 기술이전, 연구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미약품은 '11. 12월 이탈리아에서 항혈전제 '피도글'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12. 1월 품목허가증을 획득함. '12년 하반기부터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본격적인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재정위기는 의약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현지 기업들은 신약 개발 R&D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업체와의 공동 개발 및 투자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또한 복잡한 행정체제로 신약 시장진입이 타 EU국가에 비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지 의약품 기업 인수나 합작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며 시장 진입을 노려볼만 함.

□ 수출 유망품목

- 제네릭 의약품(MTI 2262)
 - 선진국 시장에서의 제네릭 의약품의 수요는 현재 16%에서 '17년에 23%까지 확대될 전망
 - 이탈리아 시장의 경우 약 23억 유로 규모로 '14년에는 15%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바이오 의약품(MTI 2262)
 - 이탈리아 바이오산업 R&D의 70%가 바이오 의약품에 집중
 - 현지 제약기업은 바이오 의약품에 미래를 걸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바이오의약품을 공공 의료서비스에 도입하려는 의지가 높아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이 진출을 꾀해볼만 함.

사. 물류

□ 최신 동향

- 물류산업은 약 2,000억 유로 규모로 전체 GDP의 12.7%를 차지
 - 운송, 하역, 창고, 포장, 유통가공 등 물류산업과 연계된 현지 기업은 16만 개사이며 고용 인구는 약 110만 명으로 집계
- 주요 수출입 물류운송 수단은 2013년 1분기 기준 육로 35.6%, 해상 30.5%로 트럭과 선박이 현지 주요 물류 수송 수단으로 나타남.
 - 철로 운송은 2%, 항공은 7.7%에 불과

<이탈리아 국제 물류 운송 수단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수송수단	금액	점유율
육로	134.3	35.6
해상	115.1	30.5
항공	29.1	7.7
철로	7.6	2.0
기타	90.6	24.2

자료원: Il Sole 24 Ore

- 최근 10년간 현지 물류 관련 중소기업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에 상당수 잠식당하여 물류산업은 큰 변화를 겪음
 - 특히 흡수합병과 불황으로 인해 '12년에 기업 수가 4.8% 감소
- 매출액 기준 주요 업체로는 DHL社, Bartolini社, TNT社 순이며 이들 세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32억 유로에 이름.

<매출액 기준 이탈리아 5대 물류업체('10년 기준)>

(단위: 천 유로)

순위	업체명	매출액
1	DHL	1,443
2	Bartolini	927
3	TNT	891
4	Savino del Bene	800
5	Ceva Group	791

자료원: Confetra

□ 전문가 진단

- Assologistica(이탈리아 로지스틱협회)
 -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로 물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현지 공공행정 시스템의 비효율과 높은 과세율이 물류산업의 성장을 저해

- 따라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모델로 물류 인프라 및 관련 행정체계를 개선해야함.
- 로테르담의 경우 컨테이너 부두가 자동화되어 있어 통관절차가 최대 하루 안에 마무리되는 반면 이탈리아는 몇 달이나 소요되는 것이 문제
- 따라서 업체들은 로테르담을 선호하여 연간 약 22만 TEU의 물동량이 이탈리아 부두 대신 인근 로테르담항을 선택하는 실정임.

□ 2014년 전망 : 보통

-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PI¹²⁾)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물류 부문에서 3.67점으로 세계 24위에 그침.
- 물류와 연관된 복잡한 행정체계, 높은 수출입 비용, 불확실한 운송기간 등은 높은 부담으로 작용
 - 물류관련 비용이 전체 산업생산의 20.5%를 차지하여 EU 평균(16%)대비 높은 수준
 - 비용, 통관절차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나 통관절차, 복잡한 구비 서류 및 관료주의적 행정절차가 물류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법(Destinazione Italia)을 '14. 2월 법제화하면서 실시간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데이터 디지털화로 수출입 통관을 24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수출 유망품목

- 이탈리아 물류업체와의 합작투자

12) Logistics Performance Index

-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반도국가로 물류산업이 발전하기에 유리한 이탈리아를 유럽 및 북아프리카 수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직접 진출도 고려해볼만 함.
-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중소 물류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스페인]

I. 2014년 스페인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13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탈출 조짐
 -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끝에 '13년 3분기 0.1% 성장(전기 대비)을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 기록('13년 연간 성장률은 -1.2%)
 - 주식시장 회복, 국채금리 하락,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투자심리 호전, 사설 연금 인기 증가 등 여러 부문에서 경기회복 가능성 징후 포착
 - * 스페인 주식시장 IBEX는 '12년 23%, '13년 21% 성장하며 외국인 투자 증가, 펀드 투자 수익률 상승 실현
 - '13년 재정적자, GDP 대비 6.6%로 개선
 - 스페인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재정적자는 '13년 GDP 대비 6.6%로 EU 목표치 6.5%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 향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큼.
 - 그러나 공공부채 비율은 GDP 대비 94%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기록, 단기간 내 가시적인 개선은 힘들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실업률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상승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라호이 정부는 추가 증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
 -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은 실업률
 - '13년 실업률은 26%에 달하며 이는 유로존 평균(12%)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
 - 수출은 재정위기 이후 성장세를 기록 중
 - '13년 수출은 전년대비 3.54% 증가하며 3년 연속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도 점차 하락
 - * 최근 무역적자 추이 : '11년 4,800만 유로 → '12년 3,200만 유로 → '13년 1,600만 유로
-

<스페인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0.1	-1.6	-1.2
재정적자(GDP 대비)	100,402(-9.6)	111,641(-10.8)	68,331(-6.7)
공공부채(GDP 대비)	736,468(70.4)	883,873(85.9)	958,031(93.7)
수출금액(증감률)	215(+15.59)	226(+5.11)	234(+3.54)
수입금액(증감률)	263(+9.58)	258(-1.90)	250(-3.1)
실업률	22.85	26.02	26.03
물가상승률	3.2	2.4	1.4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중앙은행, IMF

□ 2014년 경기전망

- (GDP) '14년 플러스 성장률 전환이 가시화
 - 2014년 스페인 정부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0.7%
 -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개혁¹³⁾이 성공할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1%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재정건전성) 경기회복 탄력과 정부 구조조정으로 회복 전망
 - 2012년 노동개혁¹⁴⁾과 세제개편¹⁵⁾, 2013년 연금개혁¹⁶⁾ 등 정부의 잇따른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며 회복을 뒷받침
 - * Moody's는 2013년 GDP 대비 7% 규모의 재정적자가 2014년 5.8%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며 2001년 이후 최초로 스페인 신용등급을 Baa2로 1단계 상향조정('14. 2월)
 - 그러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불균형은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

13)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 경쟁력 강화 →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계획하고 있음.

14) 노동시장 재편과 고용촉진을 목표로 수익률이 저하된 기업은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업원 일정과 작업,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노동자를 감원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과 해고를 용이토록 하는 것이 골자

15) 2012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 150억 유로를 확충하는 긴축재정안 마련

16) 기존의 인플레이션 자동연동 인상에서 복잡한 형태로 개선될 전망. 2014년 예상 물가상승률이 2%인데 비해 연금 상승률은 최소 0.25%만 보장할 계획. 2014년 한해 8억 유로, 향후 10년 후 300억 유로 절감 예상

- (교역) 가격경쟁력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가 내수 침체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
 -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인건비를 낮추는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일반 생산재, 식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실업률) '14년 실업문제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업률은 '13년 26.6%를 정점으로 '14년 25.9%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
 - '12년 노동개혁 이후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비정규직 증가, 고용 안전성 약화 등 부작용도 안고 있음.
 - 또한 실업률 하락이 이민증가, 노인인구 증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어 단기간에 실업률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기업투자)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투자 개선이 기대되나, 신용대출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 가능성은 상존
 - 스페인 기업들의 재정난으로 신규 해외투자 감소 및 기존 투자자본 회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 경제위기 이후 금융권의 기업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치 않음.
 - 정부는 '14. 2월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대출조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짐.
- (소비심리) '14년 이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민간소비는 '14년 0%, '15년 0.4% 증가를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 고실업률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경기개선에 비해 소비회복은 다소 미진할 것으로 예상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14년 스페인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
 - 정부, 경제 전문기관들은 '14년 스페인이 2년여의 불황을 마감하고 0.7%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 * 소비(민간, 정부)와 설비투자, 산업 활동, 서비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소폭 이나마 증가세 예상
-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한 비용감소로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업생산이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 산업생산지표: '13년 -2.0% → '14년 0.8%
- '14년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됨.
-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 신흥국 경제 불안정 등이 경기회복의 변수
 - 26%에 육박하는 실업률은 고질적인 문제이며, 지표상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악화와 사회보험 가입자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업문제 해결이 민간소비 회복,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성장 등 스페인 경제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
 - 현재 수출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보완하고 있는 만큼 신흥국 경제 불안정이 초래할 수 있는 변동성 또한 경기회복의 변수로 작용 가능

II. 2014년 스페인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스페인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산업구조는 크게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으로 분류
 - '13년 기준 GDP 대비 부가가치창출은 서비스업이 72.1%로 최대 비중을 차지
 - 이어서 제조업(건설업 제외) 13.4%, 건설업 7.8%, 농림어업 2.6% 순

□ 특징

- 수출과 관광은 경기회복의 양축으로 경제위기 이후 비중이 꾸준히 증가
 - '13년 무역, 교통, 숙박은 전체 GDP의 2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스페인은 '13년 2,342억 유로 수출을 기록 전년대비 3.54%의 성장세 실현
- '13년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은 6,060만 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스페인에서 590억 8,200만 유로를 소비(전년 대비 9.6% 상승), 관광업이 국가 최대 산업임을 입증
 - *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는 '2012-2015 국가 관광 플랜'을 설정하고 관광 인프라 현대화, 상품 다양화, 여행자 소비 증가 등의 방안을 모색 중임.
- 단일산업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7.8%)은 재정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나, 위기 이후 꾸준히 비중이 줄고 있음.
 - '08년 대비 스페인 부동산 시장가격은 1/3로 하락
 -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업 부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

<스페인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100
농업, 어업, 수렵, 임업	2.4	2.5	2.5	2.5	2.6
건설업	13.0	10.5	9.5	8.6	7.8
제조업	15.5	16.3	17.1	13.3	13.4
무역, 교통, 숙박	23.5	23.8	24.5	25.2	25.9
정보통신	4.2	4.2	4.2	4.2	4.0
금융, 보험	5.9	4.5	4.2	4.9	3.8
부동산	6.4	7.2	7.9	8.2	8.3
전문활동	7.4	7.3	7.8	7.7	7.7
공공행정, 보건, 교육	18.1	18.3	18.5	18.1	18.3
예술, 공연, 기타	3.6	3.6	3.7	3.8	3.8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임. 2014. 3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www.in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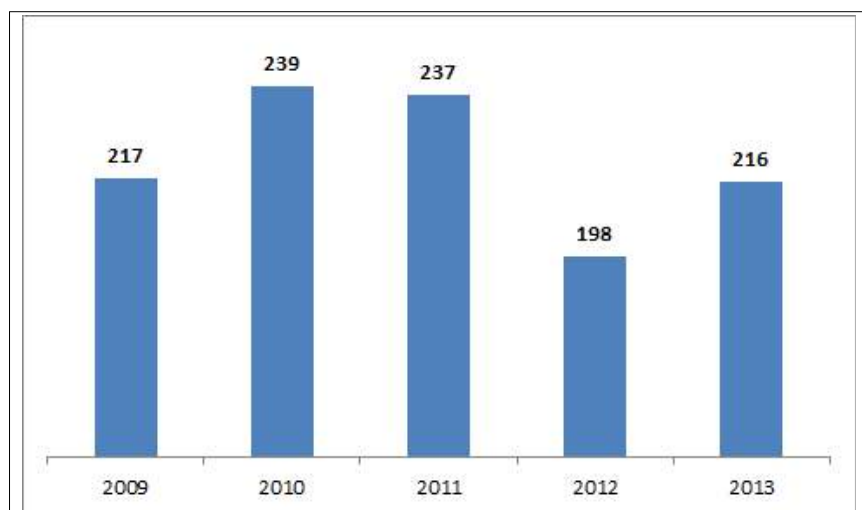
가. 자동차/자동차부품

□ 최신 동향

- 자동차 생산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 정부의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량은 '13년 전년대비 9.3% 증가한 216만 대를 기록
 - 이에 따라 '13년 자동차부품 소비도 전년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추정
 - * '12년 자동차부품: 완성차 제조 54억 유로(-15.8%), A/S용 41억 유로(-8.1%)

<스페인 연간 자동차 생산대수 추이>

(단위: 만 대)



자료원: Expansion(경제 일간지)

-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스페인 내 생산투자 확대
 - '12년 중반 이후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북유럽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스페인 내 생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 (Ford) 발렌시아 공장 생산을 '14년 34% 늘려 연간 생산대수를 31만 대로 확대할 방침
 - * (Peugeot-Citroën) 비고 공장에서의 신규모델 양산 착수에 힘입어 '13년 중 생산규모 37% 확대
 - * (Iveco) '16년 말까지 마드리드와 바야돌리드 트럭 생산공장에 5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12. 7월)
 - * (Nissan) 신규모델 생산을 위해 바르셀로나 공장에 약 1억 3,000만 유로 투자 예정

- 현지 업계에 따르면, 노사 간 생산협정 및 노동법 개정 등 유연성 강화가 생산 시설 유치 성공에 주효
- 또한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주변 산업이 잘 발달해 있고, R&D 등 기술력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손꼽힘.

□ 전문가 진단

- ANFAC(스페인완성차제조협회) 자동차 생산이 활기를 되찾음에 따라 각종 부품 수요도 동반상승 효과 기대
 - 유럽 자동차시장 회복과 구매지원 정책에 따른 내수 증가, 북미 및 터키, 북 아프리카 등지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14년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규모는 약 2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또한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의 스페인 내 생산투자 확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
- EGRA(자동차부품) A/S 시장용 한국 자동차부품 수요 점진적 증가 전망
 - 스페인 내 등록 차량들은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연식이 대체적으로 오래되어 부품 소비가 큰 편임.
 - 특히, 최근 들어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A/S 시장용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전망 : 밝음

- 스페인 내 완성차 생산 확대 전망
 - 내수 및 수출 시장이 모두 활기를 나타내며 '14년 완성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40만 대로 예상
 - 또한,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모델을 스페인 공장에서 양산하기로 결정, 유럽 자동차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것으로 기대
 - 자동차부품 시장도 동반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생산 증대는 내수 회복은 물론 각종 부품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과거에 비해 중저가 제품의 구매 비중이 늘어나 금액은 예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A/S 시장용 자동차부품 공급 유망
 - 현지 완성차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부품은 상당 부분 스페인에 생산기반을 둔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까다로움.
 - 또한, 현지 완성차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에 대한 구매결정 권한은 각 업체의 본사가 갖고 있어 실제 구매담당자 접촉이 매우 어려움.
 - 반면, 현지 수입상이나 유통업체를 통한 A/S 시장용 부품 공급은 완성차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방식보다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파악됨.
- 아시아 자동차부품 전문 수입업체 발굴 필요
 - 현재 스페인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업체가 A/S용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 신규 브랜드의 초기 진출이 까다로운 편임.
 - 따라서 아시아 브랜드에 우호적인 업체를 발굴한 후 현지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스페인 수입업체 중 상당수는 시장 내 유통 뿐 아니라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재수출도 병행하고 있어 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활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자동차배터리(MTI 742000)
 -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 증가 및 하이브리드·전기차량 생산 확대로 배터리 수요 증가 예상
 -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스페인 내 생산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생산기지를 스페인으로 선정
 - 따라서 향후 자동차용 배터리 제품 판매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브레이크 패드(MTI 742000)

-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한국산 제품 판매 확대 기대
- 한-EU FTA 체결 이후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도 상승

나. 신재생에너지

□ 최신 동향

-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동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에너지 부문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있는 것으로 판단, '10년부터 지원을 축소하는 추세
 - 스페인 내 총 전력 생산비용 중 절반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지출
 - 경기불황 장기화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량은 매년 증가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
 - * 스페인 내 1차 에너지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0%에 달함.
 - 에너지 부문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기에 이룸
 - ('12.1월)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한시적 중단 발표
 - ('12.12월) 전력생산 및 인프라 사용에 따른 특별세(7%) 신규 도입
 - ('13.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상승률 제한
 - * 그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액은 연간 물가 상승폭을 감안해 산정했으나, 앞으로 해당 지원금액은 비가공식품 및 에너지제품 등 일부 항목을 배제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방침
 - ('14.2월) '04년 이전 완공 풍력단지에 한해 전력발전 보조금 지원 중단
 -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의 매출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활동 대폭 확대
-

- (태양광) 전 세계 80~90여 개국에 'Made in Spain'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한편 발전단지 건설 입찰 등을 다수 수주
- (태양열전기) 전 세계 태양열전기 발전단지 중 77%는 스페인 기업이 건설했거나 소유하고 있음.
- (풍력) 스페인 기업이 해외에 건설한 풍력단지 설치용량은 12,000MW를 넘어섬. 또한, Gamesa社를 중심으로 풍력 터빈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

□ 전문가 진단

- UNEF(태양광업체) 스페인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이어질 전망
 - 스페인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활동이 위축되며 현지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과거에는 주로 대형 EPC 업체가 해외에 진출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인근 유럽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
- AEE(스페인풍력협회)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산업 존폐 위기
 - 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투자매력도 크게 감소
 - 이에 따라, 당분간 스페인 내 풍력단지 건설 활동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각종 기자재 수요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14년 전망 : 흐림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 대폭 삭감
 -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이 '14년에도 이어져 동 부문 정부 지원은 대폭 감소할 전망
 - 이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
- 현지 업체는 해외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공격적일 것으로 전망
 - 이미 현지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외매출 의존 현상은 금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국내매출 비중은 1998년 93%에서 2012년 31%로 대폭 감소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정부의 과도한 에너지 지원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야기
 - 호황기에 장기적 안목 없이 수립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불황이 지속되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또한 과도한 지원제도는 결국 최종 소비자 비용의 상승을 초래
 - * '09~'13년 중 전기요금은 70% 상승
- 정부는 뒤늦게 에너지 부문 재정안정을 위해 각종 법령을 반복적으로 제정 혹은 수정에 나섰으나, 이는 오히려 즉흥적인 정책 노선 변경이라는 비판에 직면
 - 관련 산업협회의 압력, 재정적자 감축 스트레스, 부처 간 불협화음 등으로 정부는 짧은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과정을 반복해 혼란이 가중됨.
 - 이러한 혼란은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잠식,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짐.
-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스페인 내 재생에너지 기반 자가발전 시장은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
 - 북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얻은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외부 전력망을 통해 판매하는 자가발전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
 - 반면, 스페인의 경우 풍부한 일조량으로 투자회수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탓에 소형 자가발전 시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정부는 '13. 7월 일반 가정이 자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때 전력망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해 관련 업계의 강도 높은 비난을 받음.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태양광 패널(MTI 831390)
 - Abengoa社를 비롯한 상당수의 스페인 EPC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 80~90개국에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입찰을 다수 수주
 - 따라서 이러한 EPC 기업들을 대상으로 태양광패널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버터, 발전기(MTI 841140)
 - 풍력발전에서도 Iberdrola社, Acciona社 등 스페인 EPC 기업들이 해외 풍력 단지 건설을 수주하고 있음.
 - 따라서 풍력발전의 핵심 부품이며 우리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버터, 발전기 등을 EPC 업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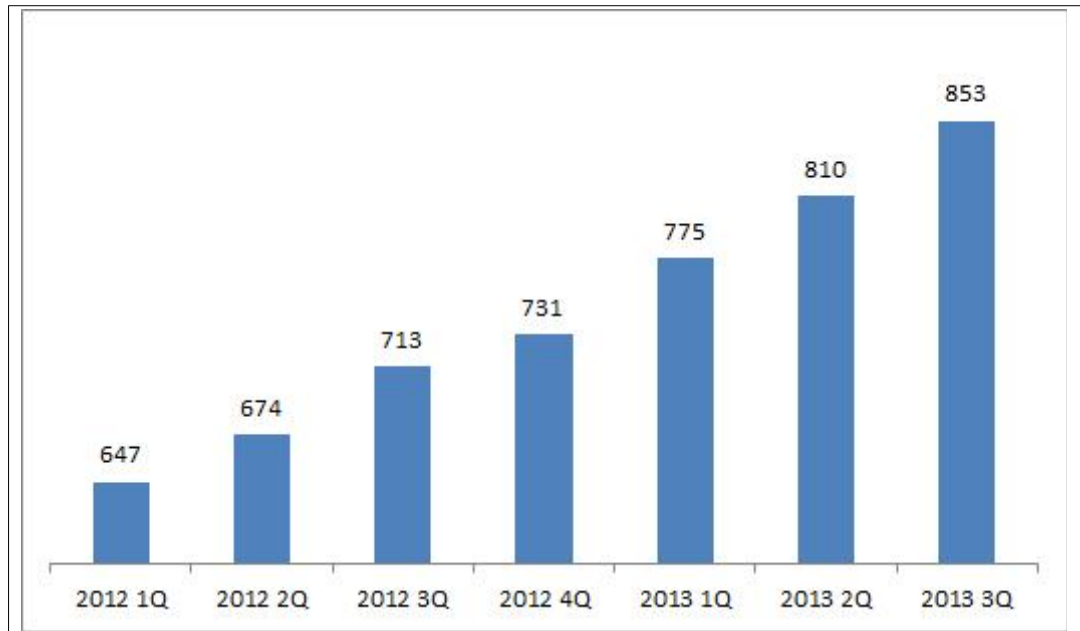
다. ICT

□ 최신 동향

- 현지 이동통신업체들의 4G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
 -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현지 이동통신업계 수익은 '13년 32억 9,327만 유로로 전년대비 19.1% 증가
 - 스페인 내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13년 3분기 기준 2,99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 증가
 - 이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은 4G시장 선점을 위해 '13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 * Vodafone社, Orange社, Yoigo社 등 스페인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은 '13년 중반부터 4G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

<스페인 내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수익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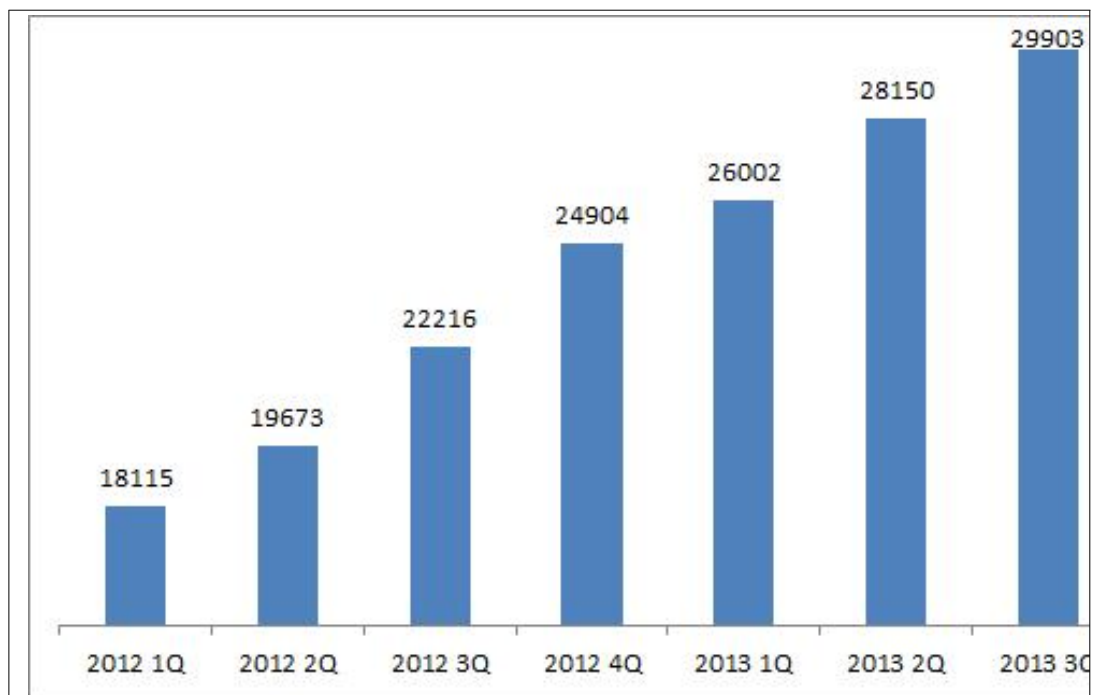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스페인 통신시장 위원회(CMT)

<스페인 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원: 스페인 통신시장 위원회(CMT)

○ 각종 무선통신 단말기 판매 급증

- (태블릿) '13년 총 판매대수는 270만 대로 전년대비 70% 증가
 - * 판매된 제품 중 절반 이상은 중저가 사양이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주를 이룸.
- (스마트폰) '13년 총 판매액은 1,182만 유로로 전년대비 13.7% 증가
 - * 시장점유율('13년)은 삼성(44.3%), HTC(15%), LG(14.3%), 애플(7.2%) 순

○ 데스크탑 PC 판매 회복, 노트북 수요 하락

- '13년 4분기 기준 기업용 데스크탑 PC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35.7% 증가해 서유럽 평균(10.7%)을 상회함. 이는 상당수의 현지기업들이 경기침체로 보류해 두었던 사무실 PC 교체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반면, 태블릿 판매 증가와 넷북 인기 하락으로 '13년 중 노트북 판매는 전년대비 14% 감소

□ 전문가 진단

○ TechData(컴퓨터) 각종 IT기기 판매 증가 예상

- 침체되었던 경기가 다소 호전되며 '14년에는 각종 IT기기 판매가 전년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태블릿과 울트라북 판매 강세가 예상되며 일반 노트북이나 넷북 판매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

○ IDC(ICT) 스마트폰 및 초고속 무선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

- '14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전망 : 밝음

- 이동통신 기기와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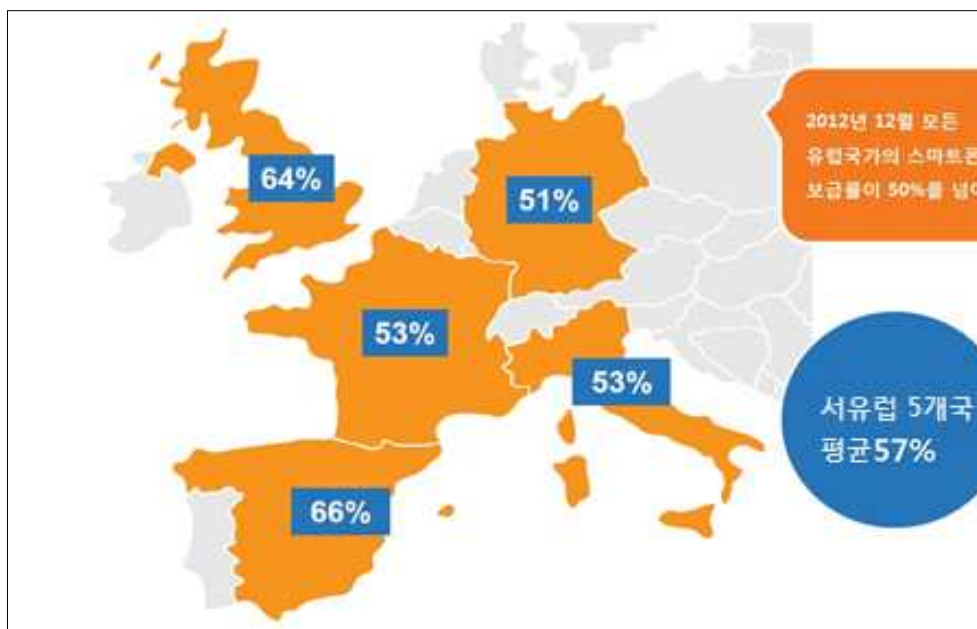
- 현지 업체는 유선 전화기나 피쳐폰 사용자 수는 하락하는 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최첨단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하며 각종 어플리케이션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현지 이동통신업체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전망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유럽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 스페인 내 휴대전화기 이용자는 '12년 말 기준 총 3,500만 명으로 독일(6,100만), 영국(4,950만), 이탈리아(4,800만), 프랑스(4,750만)에 비해 다소 낮음.
 -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전체 국민 중 약 66%가 보유하고 있어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 서유럽 스마트폰 평균 보급률은 57% 수준

<EU 주요국가의 스마트폰 보급률>

(단위: 총 인구 중 %)



자료원: comScore MMX

- 태블릿 PC, 스페인 PC시장 선도
 - '13년 스페인에서 판매된 컴퓨터 625만 대 중 태블릿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함.
 - 동 기간 중 애플社의 태블릿 PC 시장점유율은 33%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28%), BQ(5%), ASUS(4%)가 그 뒤를 따름.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스마트폰 케이스(MTI 813590)
 -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른 관련 액세서리 판매 동반 상승
 - 다만, 불황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로 중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어 시장 규모는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케이스는 충격으로 인한 기기 손상 예방에 필수적이며, 자신만의 스마트폰을 꾸미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 경기침체에도 꾸준히 판매될 것으로 보임.
- 광케이블(MTI 85003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가
 - 그간 현지 일부 통신기업은 대규모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통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연기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망 확충을 위한 투자 진행 중
 - * Vodafone社는 '15년까지 스페인 내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광케이블 인프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Orange社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케이블 인프라 확충 관련 투자 중

라. 식음료

□ 최신 동향

- 경기침체에도 식음료 산업 매출은 안정적
 - '13년 식음료 산업 매출은 약 892억 유로로 전년대비 1.1% 하락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13년 중반 이후 경기가 차츰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산업생산 활동이 빠

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13. 12월 식품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유럽에서 식품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음
 - 유럽 주요 식품 생산국으로 꼽히는 스페인의 '13년 식품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5%로, 프랑스(1.4%), 이탈리아(0.1%), 독일(-1.7%) 등에 비해 높은 수치 기록
 - 최대 수출 품목은 와인, 돼지고기, 올리브유 등으로 유럽 역내수출 비중이 약 77%에 달함.

□ 전문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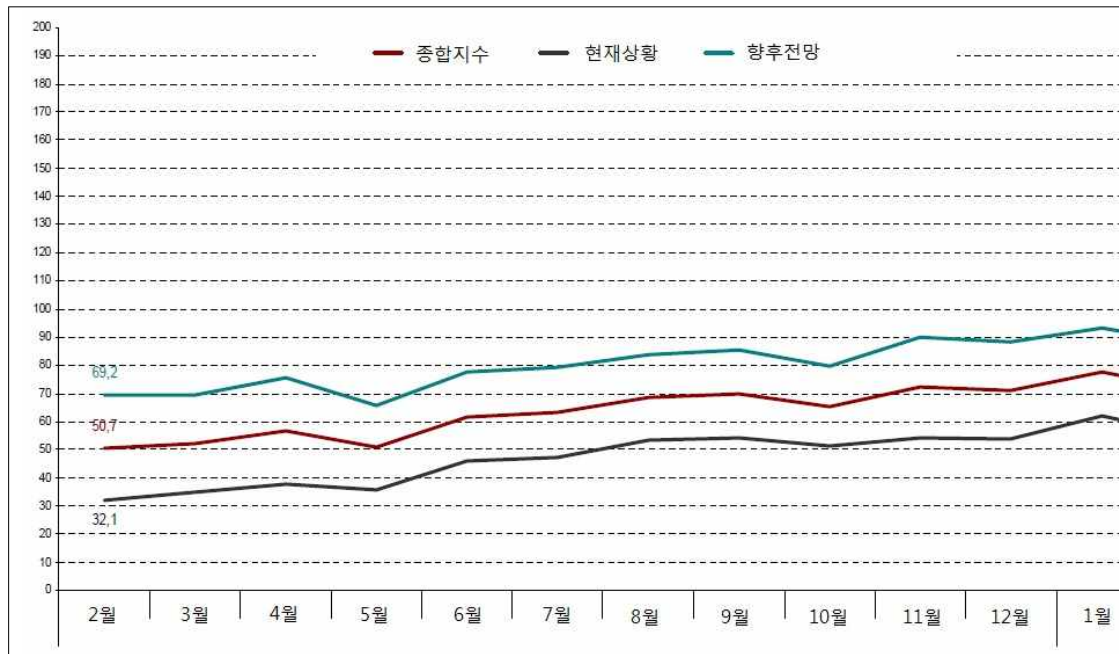
- FIAB(식음료제조협회) 식음료 산업이 국가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
 - 스페인 식품산업은 강력한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매년 4%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6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JAPONSHOP(바이어) 아시아산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 확대
 - 과거에 비해 현지 소비자들의 아시아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추세
 - 아시아계 이민자 유입 증가가 현지 아시아산 식품 시장의 성장에 일조

□ 2014년 전망 : 밝음

-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식품산업 매출도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13년 중반 이후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 부문 지출이 점차 늘어날 전망

<스페인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사회연구소(CIS)

-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스턴트식품의 소비 증가
 - 1인 가정의 증가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현지 업체들은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품질이 우수하며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식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PB)제품이 고공성장을 이어가는 중
 - 최소한의 품질만을 보장하나 가격은 일반 브랜드의 절반에 가까운 PB제품이 재정위기 이후 현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기업들은 식품은 물론 생필품, 위생용품, 잡화에 걸쳐 다양한 자체브랜드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이에 힘입어 스페인 내 식품시장에서 PB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10% 미만에서 '13년 34%로 급속히 증가

- 일부 대형 식품업체는 파산 위기
 - 장기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Pescanova社(생선가공), Panrico社(제과) 등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있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인스턴트 라면(MTI 016400)
 -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산 라면이 호응을 얻고 있음.
 - 화교계 식품점을 중심으로 라면 취급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장류(MTI 0143)
 -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아시아 음식을 조리해 즐겨먹는 현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간장이나 참기름과 같은 아시아식 소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

[그리스]

I. 2014년 그리스 경기전망

□ 최근 경제 동향

- 제조업 및 내수시장은 오랜 침체 후 회복세
 - '14. 1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선을 돌파한 51.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6 포인트 증가
 - * PMI 지수는 50 이상인 경우 경기팽창을, 50 미만인 경우 경기수축을 의미
 - 최대 내수부문인 자동차시장은 '08년 이후 80% 급감했지만, '13년 신차 판매는 7만 8,630대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1.2%의 증가세 기록
- 금융시장에도 회생 조짐이 엿보임.
 - 정부의 채무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위기에 몰렸던 주요 은행들이 '13년 잇따라 자금조달에 성공하면서 금융권도 회복되는 분위기
 - 최근 Piraeus 은행은 5년 만에 5억 유로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복귀
 -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리스 은행 부문이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랐음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됨.
- 서비스 수지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달성
 - '13년 경상수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12억 4,000만 유로 흑자를 기록
 -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치인 1,780만 명, 관광수입은 119억 9,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해 서비스 수지 개선을 주도
 -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의 경우 가격 인하로 '13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
 - 또한 지속된 재정위기로 인한 수입 금감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4억 유로 감소한 172억 유로 기록

<그리스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7.1	-6.4	-3.7
재정적자(GDP 대비)	9.5	9.0	2.2% *
공공부채(GDP 대비)	170.6	156.9	176.0 *
수출금액(증감률)	243.5(49.0)	276.1(13.4)	275.2(-0.3)
수입금액(증감률)	484.1(0.6)	491.9(1.6)	468.6(-4.7)
실업률	17.7	24.6	27.5
물가상승률	3.1	1.0	-0.9

자료원 : Eurostat

* 주: '13년 지표 중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은 정부 추정치로 2014. 3월 기준 최신 수치

□ 2014년 경기전망

- (GDP) '14년에는 7년 만에 플러스 성장 예상
 - '08년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이 '14년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하여 0.6% 성장이 전망됨.
 - 관광산업 호황으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해운시장 회복,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다만 거시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최소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 * 증세 등 긴축정책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 및 투자위축 등이 실물경기 회복의 주요 걸림돌임.
- (재정건전성) 재정적자는 지속 감소, 공공부채는 소폭 증가
 - '14. 1월 기초 재정수지 8억 1,000만 유로 흑자를 달성하면서 구제금융 줄임에 청신호를 보임.
 - * 정부는 트로이카(IMF, 유럽중앙은행, EU집행위)와의 협의 당시 기초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일 경우 흑자액의 70%는 복지지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한 바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조치 및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3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175.5%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지만, '14년부터 완만한 감소세 전망
- (교역) '14년 수출입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
 - 유로존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국인 터키 등 신흥국 경제 불안에 따라 교역량은 보합세 예상
 - * '13년 기준 그리스의 주요 교역국은 EU 국가 및 러시아, 중국, 터키 등임.
- (실업률) 실업률은 2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
 - '13년 실업률은 27.4%로 EU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 '13년 EU 전체 실업률은 10.9%, 청년 실업률은 23.5% 수준
 - '14년에는 기업환경 개선 및 경기회복 기대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26%로 예상됨.
- (기업투자) 고정투자 감소폭은 최근 수년간 개선되어 완만한 회복세
 - '12년 고정투자는 GDP 대비 -19.2%, '13년 -10.0%를 거쳐 '14년에는 -2.0%로 다소 개선될 전망
 - 단위당 노동비용과 최저임금 하락에도 법인세가 '13년 20%에서 26%로 인상되는 등 긴축조치 강화에 따라 일부 기업이 그리스를 떠나 인근 국가로 이전함.
 - * Coca-Cola HBC(식음료)社は 스위스로, FAGE社(유제품)는 룩셈부르크로 이전
- (소비심리) 본격적인 소비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심화로 '14년 물가상승률은 -1.0%로 전망
 - 당분간 높은 실업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계소득 감소로 단기간 내 소비심리 회복은 어려운 상황

□ 총론 및 특이사항, 시사점

- 13년 정부 기초 재정수지가 6억 9,000만 유로 흑자로 추정되는 등 거시지표의

회복에 따라 규제금융 탈출 기대감 확산

- 최근 규제환경 개선, 거시경제 회복,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에 힘입어 '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년대비 5단계 상승
- 반면, 규제금융 수혜의 대가로 트로이카에 약속한 공무원 구조조정, 국영자산 민영화가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위험 요인
- 한편, 고강도 긴축으로 현 연립정권의 지지도가 낮아져 야당 좌파연합에서 조기총선을 실시할 경우 정국불안 우려
- 재정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제품, ICT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폐기물·수처리 등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어 국내 유망기업의 적극적 진출이 요구됨.

II. 2014년 그리스 주요 산업별 기상도

1. 그리스 산업구조 개요

□ 산업 구조 개황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90%를 차지하며, 관광산업 및 해운업이 대표 산업
- 이에 따라 관광 연계 부동산, 숙박업, 도·소매업도 활발함.
-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은 전체 GDP의 약 3.5%에 불과
- 제조업도 산업입지 및 제반 인프라가 미약하여 5.7%로 소규모이며, 자동차, 전기전자,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식음료, 담배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 올리브, 와인, 치즈 등의 가공생산이 활발하며 최근 담배잎 생산도 증가
- 원유를 수입한 후 가공하는 석유정제 제조업도 비중이 높은 편

□ 특징

- 그리스는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생 기반 산업이 약하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공공부문의 총생산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지만, 정부 행정 서비스가 느린 편이며 관료주의가 심함.

<그리스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단위: 백만유로, %)

산업구분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100.00	100.00	100.00
민간부문	79.66	80.00	79.70
농업	2.74	2.81	2.91
임업	0.02	0.02	0.03
어업	0.33	0.39	0.43
광업	0.29	0.32	0.30
제조업	8.71	9.80	5.79
- 식음료,담배제조업	3.16	3.38	3.22
- 섬유,가죽제조업	0.57	0.55	0.46
- 목재가구제조업	0.24	0.23	0.26
- 종이,펄프제조업	0.13	0.16	0.12
- 녹화영상복제업	0.28	0.27	0.30
- 석유정제유제조업	0.61	1.00	1.13
- 화학제품제조업	0.29	0.30	0.28
- 의약품제조업	0.27	0.54	0.35
- 고무,플라스틱제조업	0.18	0.12	0.13
- 비금속광물제조업	0.69	0.77	0.53
- 금속류제조업	0.40	0.60	0.70
- 조립금속류제조업	0.61	0.70	0.54
- 컴퓨터기기제조업	0.08	0.07	0.06
- 전기기기제조업	0.20	0.27	0.29

- 기계류제조업	0.27	0.29	0.20
- 운송기기제조업	0.05	0.07	0.06
- 기타운송기기제조업	0.22	0.18	0.14
- 가구제조업	0.43	0.30	0.23
기계설치수리업	0.15	0.14	0.16
전기,가스 공급업	2.22	2.30	2.62
수처리공급업	0.20	0.22	0.36
하수처리업	0.63	0.73	0.87
건설업	5.12	3.47	2.49
자동차 도소매업	2.24	2.43	2.12
도소매업(자동차제외)	5.77	5.87	5.59
소매업	3.77	3.92	4.20
육상 운송업	2.11	1.56	1.28
해양 운송업	3.18	3.82	3.63
항공업	0.16	0.23	0.25
물류산업	0.62	0.70	0.74
우편택배업	0.36	0.30	0.25
숙박업	6.66	6.78	6.90
도서출판	1.10	1.03	0.98
방송업	0.40	0.34	0.31
통신업	2.71	2.86	2.93
SW프로그래밍	0.75	0.62	0.63
금융서비스	3.62	3.70	3.68
보험,재보험,연금	0.38	0.40	0.39
기타 금융서비스	0.48	0.63	0.82
부동산 서비스	13.99	14.02	15.80
법률,회계서비스	2.65	2.15	1.53
건축 기술업	0.94	0.89	0.76
연구개발	0.16	0.11	0.07
광고,시장조사	0.06	0.15	0.06
기타 전문 서비스	0.49	0.47	0.48
임차 서비스	0.27	0.32	0.33
고용서비스	0.08	0.08	0.08

여행업	0.41	0.26	0.20
보안안전서비스	1.12	1.23	1.32
NGO	0.36	0.30	0.16
박물관, 문화, 오락	1.44	1.61	1.82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0.11	0.09	0.08
조직 단체	0.58	0.66	0.73
컴퓨터제품수리업	0.47	0.43	0.44
기타 자영업	1.08	1.13	1.22
기타	0.69	0.71	0.72
공공부문	20.34	20.00	20.30
- 공공행정(국방 포함)	9.69	9.50	9.90
- 교육	5.76	5.76	5.75
- 의료건강	4.89	4.74	4.64
순 국내 총생산(백만유로)	205,901	195,222	183,137
세금(백만유로)	25,180	26,930	25,395
국내 총생산(백만유로)	231,081	222,151	208,532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GDP 비중임. 2014년 3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원: 그리스 통계청 (<http://www.statistics.gr>)

2. 산업별 기상도 및 유망품목

가. 자동차부품

□ 최신 동향

- '14년을 전후로 반등세를 보이며 완만한 수요 상승 기대
 - '08년 자동차 수입시장이 80% 급감한 후 자동차부품시장도 감소해 왔지만, '14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수요회복 전망
 - 주요 바이어들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부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인근 터키, 중동으로부터 OEM 수입이 증가

<자동차 부품 시장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연도	시장 규모	증감율
2007	930	13.8
2008	855	-8.1
2009	762	-10.9
2010	605	-20.6
2011	540	-10.7
2012	470	-13.0
2013*	460	-2.0

자료원: ICAP Group AE 자료, 2014. 3월 기준 최신 수치

* : 추정치

□ 전문가 진단

- (그리스 자동차부품수입협회) 한국산 부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완만한 수요 증가 예상
 - 세금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자동차부품 소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재정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부품 교체시 정품대신 OEM 부품을 선호
- * 기존 한국 제품의 품질경쟁력 외에 '11년 7월 한-EU FTA 발효 후 한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 증가
- ISCHIS(자동차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점진적 회복 예상
 - 지난 수년간 축소된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14년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됨.
 - 한국산 배터리는 그리스 수입업체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평판이 좋으며 향후 수입을 지속하기를 희망함.

□ 2014년 전망 : 보통

- 자동차부품 시장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도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GM 계열사 Chevrolet가 유럽시장 철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됨.

□ 특이사항 및 시사점

- 중국산 저가제품과 유럽산 고품질 제품 사이에서 국산 자동차부품의 경쟁력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에 있음.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자동차 배터리(MTI 742000) 우수 품질과 브랜드로 국산 배터리 수요 증가
 - 그리스는 배터리 제조기반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4,000만 유로에 달함.
 - 전체 수입액의 약 60%가 내수용으로 사용되며, 연간 소요되는 자동차 배터리는 약 200만개
 - 재정위기로 동 시장이 위축되었음에도 '13년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해 1위를 유지
 - 경쟁국인 이탈리아, 독일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을 보유해 바이어들로부터 수요 증가

나. ICT · 전기전자

□ 최신 동향

- '14년 ICT · 전기전자 산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13. 9월 기준 총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8.3% 감소한 17억 6,000만 유로에 달함.

- 부문별 수입증감 차이가 뚜렷하며, 증가품목으로는 전선, 광케이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CCTV, 기타 전기기기로 나타남.
- 감소품목은 유선전화기, 태양광모듈, TV 수신기, 전기전원 공급기 등

□ 전문가 진단

- 그리스 보안회사협회(CCTV)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 증가와 공공 프로젝트 발주로 인해 CCTV 및 보안기기 수요는 매년 급증
 -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지역의 CCTV 설치 프로젝트, 야간카메라, 항구 및 공항 감시카메라, 가계용 보안카메라의 수요가 지속 증가해 향후에도 보안기기는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
 - 한국산 CCTV 등 보안기기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지속된다면 수입을 늘릴 계획
- 그리스 정보기술통신협회(ICT) 재정위기로 인해 지난 수년간 ICT 산업은 침체를 겪었지만, 광통신 케이블 구축, 전자정부 추진 등 프로젝트 발주 증가 및 내수 회복으로 개선되는 추세
 -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와의 협상 당시 비효율적인 정부시스템 및 극심한 관료주의 해결을 위해 전자정부(E-Government)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한국산 전기전자 및 ICT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 수요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전망 : 보통

- '14년 ICT·전기전자 시장은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정부발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
-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태블릿 PC(MTI 813120)

- 최근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14년 시장규모는 9,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3년 태블릿 PC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6,800만 유로로 추정되며, 연간 28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
- 현지 인기 태블릿 PC의 평균 가격은 200 유로 내외로 400~600 유로인 노트북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CCTV(MTI 821490)

- 생계형 범죄가 매년 늘어나 보안장비 수요 증가
- '13년 기준 CCTV 시장은 약 24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4.8% 성장
- 주요 경쟁국인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제품이 약 800 유로 이상의 고가격대, 대만산이 약 600 유로로 중가격대, 중국산이 약 400 유로로 저가격대 형성

다. 해운

□ 최신 동향

○ 해운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13년 회복 국면에 돌입, 그리스 선주들은 선박 발주량을 늘리는 중

- '13. 1월에 인도된 선박 발주량은 40척으로 '12년 한 해 거래량 19척을 초과
- 벌크화물선 2억 8,000만 달러, 유조선 1억 3,000만 달러, 컨테이너선 3,5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거래량의 각각 30%, 19%, 27% 차지

○ 조선·해운 분석기관 Clarkson Research에 따르면 '14. 2월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124척으로 우리나라는 31척을 수주하며 활황을 이어감.

- 특히, 우리기업의 선박 점유율은 45.6%를 기록해 경쟁국인 중국의 19.4% 대비 두 배 이상의 우위를 점함.

- '14. 1~2월 한국은 약 70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했으며, 중국 대비 30억 달러 초과, 일본 대비 10배가 더 많은 실적 기록
- 이는 초대형 LPG 운반선(VLGC¹⁷⁾) 등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의 확대에 기인함.
- 아프리카와 호주 등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어 향후 석유 공급원이 확대됨에 따라 유조선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전문가 진단

- 그리스 선주협회
 - 지난 수년간 세계경기 침체로 해운 물동량이 대폭 감소해 타격을 입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그리스 해운업은 안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14년 해운경기 회복으로 인해 향후 신규 선박 발주를 늘릴 계획이며, 향후 친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부품 탑재 선박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
- M.I.E(선박부품 바이어) 최
 - 최근 CO₂ 규제, 수질환경 규제 등 국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선박 부품 수입 시 BWM 협약¹⁸⁾ 준수 부품 등 친환경 소재 부품 수입을 적극 늘릴 계획

□ 2014년 전망 : 밝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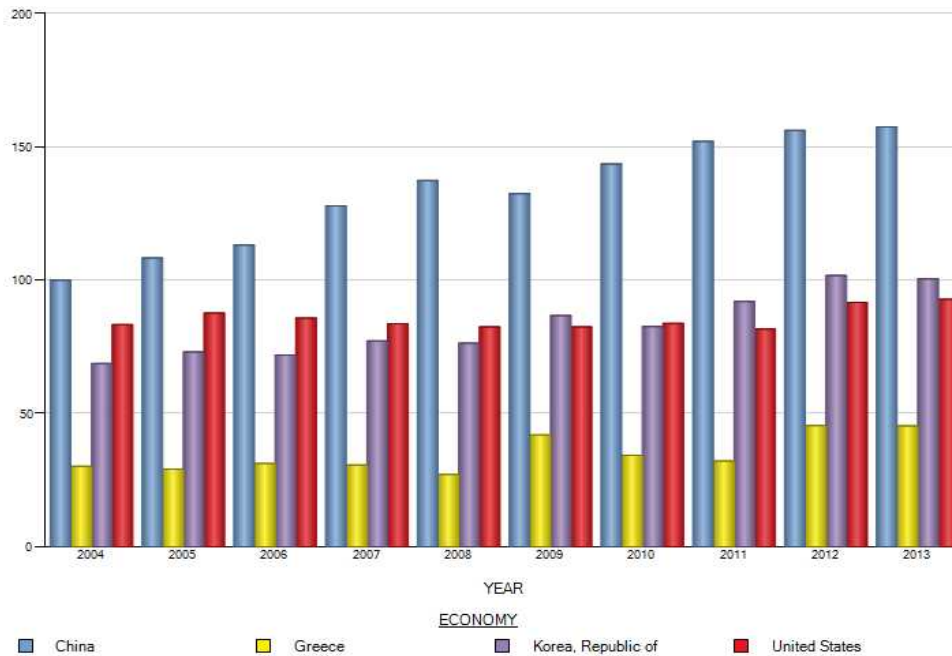
-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운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주요 선주들의 선박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1년 이후 현재까지 그리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정기선 해상운송 연계 지수(LSCI¹⁹⁾)는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17) Very Large Gas Carrier

18) BWM(Ballast Water Management) 협약 : 선박평형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하여 2004년 2월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관련 용어 정의에서부터 협약 적용 범위, 관리 증서의 발급과 검사, 위반 시 법률에 의한 처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룸.

19) LSCI :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2004~2013년 주요국 정기선 해상운송 연계지수(LSCI) 동향



자료원: UNCTAD, 2014.4.10 기준 최신 자료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선박평형수처리 장치(MTI 746400)

- 국제해양기구 및 미국 해양안전규정의 BWM 협약에 따라 친환경 선박평형수처리 장치 수입수요 증가
 - *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 부식을 막기 위해 국제해양기구에서 협약한 친환경 선박평형수처리 규제 시행
- 선박평형수의 전기적 살균 및 잔존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는 장치 수요 급증
- 관련 부품으로는 밸러스트 펌프²⁰⁾, 밸러스트 전력상황 모니터, 밸러스트 제어장치, 밸러스트 센서, 침전물 방어장치 등이 있음.

라. 에너지

□ 최신 동향

20) 선박 속에 설치하여 선적 하중의 불균형 발생 시 물 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뱀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 펌프

- 그리스는 EU에서 규정한 에너지 절감목표인 20-20-20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전체 에너지의 80%는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전기, 가스 소비를 줄여야 함.
 - 그 외 분야에서는 LED 등 친환경 제품을 통해 에너지 절감 계획
- * 20-20-20 목표 : EU는 '20년까지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0% 감축,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 3)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는 계획
- 특히, 정부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트로이카와 협약 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약속했으며, 스마트 미터기 대체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움.
 - 환경부는 기존 구 전력계량기에서 스마트 미터기 대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년까지 총 560만 개의 스마트 미터기 교체예정
- * 주요 일정
 - ① '14.7.1일: 신규 스마트 미터기 대체 프로젝트 시작
 - ② '17.6.30일: 전체 계량기의 40%를 스마트 미터기로 대체
 - ③ '20.12.31일: 전체 계량기의 80%를 스마트 미터기로 대체

□ 전문가 진단

- Bitros(에너지절감제품 바이어)
 - 에너지 절감제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리스 전력공사(PPC)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관련 한국 업체들과 협력해 정보교류, 파트너십 구축, 공동연구 진행 희망
 - 가정, 상가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가격조건이 맞을 경우 국내 우수 LED 제품 수입을 희망함.

□ 2014년 전망 : 밝음

- 지난 수년간 지속된 긴축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
 - 기존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원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감부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
-

□ 수출 유망품목 및 사유

○ 스마트 미터기(MTI 842390)

- 전력공사(PPC)와 에게해 지역 지속개발가능협회(DAFNI)는 Lesvos, Limnos, Milos, Kythnos, Santorini 섬에 스마트 전기미터기, 에너지 컨트롤 센터, 태양광 시스템 등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진행할 예정
- 소요예산은 총 5,200만 유로 규모로 재원은 PPC 전력공사 90%, 민간투자자 및 지자체 정부 10% 비율로 조달할 계획

○ LED 조명(MTI 826910)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LED 전구는 전체 조명시장에서 38% 비중으로 추산되며 시장 규모는 약 2만 3,000 유로
-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LED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년 시장이 4% 이상 확대될 전망

첨부 1. 유럽 국가별 '14년 경제 기상도 및 특이사항

국가	'14년 경제 기상도	전망 및 특이사항
독일		- GDP 성장률 전망치 1.8% - 고용, 소비, 수출, 물가 등 주요 지표 안정세 - 설비투자, 민간소비, 소매판매 모두 증가
영국		- GDP 성장률 전망치 2.4%로 확실한 경기회복세 -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내국인 실업은 악화 - 금리 인상시 기업투자 감소 우려 - 신흥시장 개척으로 수출입 지속 증가세
프랑스		- GDP 성장률 전망치 1% - 소폭의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소폭 증가 - 실업률과 증세로 소비심리 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
네덜란드		- GDP 성장률 전망치 0.75% 성장으로 마이너스('13년 -0.8%) 탈출 - 수출, 투자 중심으로 회복 기대 - 고실업률과 내수부진은 지속, 정부 개혁에 대한 지지도 낮아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벨기에		- GDP 성장률 전망치 1.4% - 완연한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투자 증가 -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실업률 악화가 문제, 총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스위스		- GDP 성장률 전망치 2.3% - 재정위기에도 EU 평균 성장률 상회,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입 활기 - 안정적인 내수 및 낮은 실업률은 장점이나 스위스화 강세는 가격경쟁력 악화 요인
오스트리아		- GDP 성장률 전망치 1.7% 성장 - 내수, 기업투자, 수출입 등 주요 지표 회복 예상 - 고용악화로 실업률은 증가
핀란드		- GDP 성장률 전망치 1% 초반 - 미국,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나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감소 우려 - 소비심리는 점차 회복중이나 실업률과 세금 인상으로 다시 위축될 우려 상존
스웨덴		- GDP 성장률 전망치 1.6% - 법인세 인하, 민간소비, 정부지출 확대, 내수 진작을 위한 저금리 유지 등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
이탈리아		- GDP 성장률 전망치 1.1% - 정부에 비해 외부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관건 - 잇따른 총리 교체 등 정치 불안이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
스페인		- GDP 성장률 전망치 0.7%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가시화 - 수출호조가 내수침체 보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구매력저하에 따른 소비회복은 미진 - 기업투자 개선이 기대되나 자금조달 환경 악화 가능성 상존 - 고실업률, 재정적자, 신흥국 경제 불안정 등이 변수
그리스		- GDP 성장률 전망치 0.6%로 7년 만에 플러스 성장 - 재정적자 축소, 수출입은 보험세, 고정투자는 감소폭 축소, 실업률 소폭 감소 전망 - 고실업률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소비회복에는 시일 소요
불가리아		- GDP 성장률 전망치 1.8% - EU 경기회복으로 교역 증가 예상, 재정적자·공공부채 안정세, 실업률 소폭 하락 - 정치안정과 EU 기금으로 기업투자 개선
루마니아		- GDP 성장률 전망치 2.2% - 주요 경제지표 양호, 수출 성장세, 소비심리 호전 -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예상
체코		- GDP 성장률 전망치 1.4% - 코로나화 약세와 EU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본격 확대, 가계소비 증가 - 재정건전성도 양호, 인센티브 축소로 FDI는 감소 우려
헝가리		- GDP 성장률 전망치 2%, 산업생산, 투자 증가로 뚜렷한 성장세 - 재정적자, 공공부채 모두 기준치(3%, 60%) 미만 유지 - 서유럽 경기회복세와 포린트화 평가절하가 수출증가 견인
폴란드		- GDP 성장률 전망치 2.9% - 고용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 즈워터화 약세로 수출 증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투자 활성화 -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 유지
크로아티아		- GDP 성장률 전망치 0%대, EU 기금 유입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재정적자·공공부채 과다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높은 실업률,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도 여전히 부정적

주)  = 맑음  = 구름 약간  = 구름 많이  = 흐림

첨부 2. 유럽 국가별/산업별 경기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국가	'14년 경기전망	주요 산업	전망 및 특이사항	수출 유망품목
독일	- GDP 1.8% 성장 - 고용, 소비, 수출, 물가 등 주요 지표 안정세 - 설비투자, 민간소비, 소매판매 모두 증가	자동차/자동차부품	- 전기차 보급 확대로 배터리 수요 증가 - 노후차량 교체 수요 - 중형 및 SUV 차량 선호 추세 지속 - 글로벌화로 아시아시장 중요성 증가 - 안전/전장부품/IT기술 부품 수요 증가	- 카스테레오: 한국산 전장부품 관련 수요 꾸준히 증가 - 기타축전지: 글로벌 소싱 확대, 한-EU FTA에 따른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석유화학	- 경기회복으로 성장세로 전환 -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수요 증가	- 에틸렌중합체필름: 한국산에 대한 평가가 좋으며 한-EU FTA로 가격경쟁력 제고 - 안료: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對독일 수출 증가
		ICT	- 소프트웨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기 부문 높은 증가세 - IT 융합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잠재력 다대	-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기기 수요 강세 - 기타보조기억장치: 인터넷의 생활화로 메모리카드, USB 등의 제품 수요 급증
		전기전자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상승 기대 - 유럽, 중국 대만 기업과의 경쟁 치열 - 브랜드 이미지 지속 개선 필요	-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월드컵 특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세 지속 - LED조명: 백열전구 금지, 친환경 절전형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섬유	- 고부가가치 산업용 기능성 섬유 수요 꾸준히 증가 -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경쟁력에 민감	- 폴리에스테르섬유: 한-EU FTA로 가격우위 발생 - 기타합성섬유: 폴리에틸렌 등 고품질 한국산 섬유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기계	- 경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전망 - 고부가가치 초정밀/초고속/초절전 기기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 차별화 중요	-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한국산이 인지도, 기술력 면에서 상승세 - 금속절삭 가공기계: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의료기기	3%대 소폭 성장 - 고품질 의료기술, 웹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유망	-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우수, 공공조달 납품 기회 확대 - 분석시험기부품: 한-EU FTA 효과로 수출 증가세
영국	- GDP 2.4% 성장 - 확실한 경기회복세 - 전체 실업률은 내국인 안정적이거나 악화 - 금리인상 우려 기업투자 - 신용시장 개척으로 수출입 지속 증가세	자동차	- 중소형 모델 강세 지속 - 정부지원, 친환경성, 경제성 등으로 경차 및 전기차 성장 - 법인 구매가 개인 구매를 앞섬	- 소형자동차,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배기량 차량 수요 높음.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 교체용자동차부품: 각종 부품 교체 수요 증가 지속
		ICT	LTE 단말기 등 무선전화기, 스마트기기용 콘텐츠 시장 전망 밝음	대화면 스마트폰: 한국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기계	- 신용국 수요, 제조업 부흥에 따른 공장기계류 등 수요 확대 -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 강공기계 수요 꾸준	금속가공 공장기계: 한국산이 가격경쟁력, 제품 정확도, 내구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됨
		건설	- 주택시장 활성화, 대형 인프라건설 사업으로 경기회복 기대 - 건설장비/기계류 수입 증가 추세 속 소형장비 선호	굴삭기: 도심 공사현장 접근 용이, 한국산이 경쟁국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제약/의약품	• 신약 특히 만료로 복제약시장 높은 성장세 • 공공조달 시장 중요성 증대 • 비용절감을 위해 아시아산 직수입 선호 증가	• 바이오시밀러: 개발 완료 및 시판중인 한국 제품 다양
		에너지	• 경기침체로 축소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회복은 경기에 따라 유동적 •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회생 조짐	•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완제품: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장 급부상으로 예전 판로 회복 기회
		섬유	• 실속구매 트렌드로 저가형 제품 인기 • 중국산 반덤핑 조치로 한국제품의 반사이익 기대 • 의류 제조사의 폴리에스터 직접 수입 사례 증가	• 의류시장용 원단류: 한국산 이미지가 좋음
프랑스	• GDP 1% 성장 • 소폭의 경기회복세로 수출입소폭증가 • 실업률과 물가 상승세로 경기가능성 하회반기나 전망	자동차부품	• 유럽 내 자동차 생산 증가로 부품 수요 4%대 증가 예상 • A/S 부품이 전체 부품 수요 증가 견인 • 스마트카 부상으로 기술혁신 및 차별화 제품이 수요를 창출할 전망	• 임베디드 시스템: '20년 시장규모가 현 수준의 3배인 150억 유로일 것으로 추정 • 클러치와 그 부분품: 한국산 차량 증가, 차량 수명연장 등으로 수요 지속 증가
		화학	• 자동차, 포장산업 회복 등으로 1%대 생산 증가 • 나노기술 발전으로 제품 품질, 기능 및 성능 향상 • 기술규격, 행정절차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는 추세	• 폴리카아보네이트: 한-EU FTA로 경쟁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 폴리이소부틸렌: 한-EU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가세
		자동차	• '14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판매 개선 • 중급 모델에 주력하던 프랑스 기업들이 저가 및 프리미엄 시장에 적극 진출	• SUV 자동차: 위기 속에서도 판매 꾸준히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동차 수요 급감에도 판매 증가, 보급 초기 단계로 시장확대 가능성 다대
		항공우주	• 우주장비, 비즈니스용 항공기 판매 호조 • 프랑스 내 하청생산 능력부족으로 해외생산 및 투자 증가	• A350용 동체부분품 및 날개부분품: 동 기종 주력 생산으로 관련 부품 수요 증가 • A320용 동체부분품 및 날개부분품: 한국산 수입 급증 추세
		ICT/가전	• IT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시장 규모 역시 증가 • 가전제품은 저가제품,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대비 증가 제품 수요 감소	• 프리미엄 4G 스마트폰: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 선전 • 스마트시계: 신기술, 헬스케어 시스템 등이 결합, 소비자층 확대
		철강	• 자동차 등 실수요 분야에서 제한적인 성장세 예상 • EU 역내 거래가 선호되어 제3국 수입 확대에는 시일 소요	• 주석도금한 평판압연제품으로서 두께가 0.5mm 미만의 것: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한국제품 수요 증가 • 페로알로이: 수입 수요 회복에 한국제품 수요 증가
		전자부품	•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자부품 수요 확대	• OLED 소자: 한국산이 기술력과 생산력을 이미 보유한 제품군 • LED 소자: 조명기기,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요 증가 추세
		기계 장비	• 철강, 항공기, 에너지 분야 경기회복으로 산업용 기계 수요 증가 • EU 내 한국산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프레스용, 펀칭용 부품: 한국산 기계부품 인지도 증가, 한-EU FTA로 가격경쟁력 제고 • 기타자주식기계: 최근 한국산 수입이 증가하며 6대 수입국으로 부상

네덜란드	- GDP 0.75% 성장으로 마이너스('13년 -0.8%) - 수출, 투자 중심으로 회복 기대 - 고지실업률과 내수부진은 정정해 대한 지지도 낮아짐	신재생에너지	-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중이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관련 기술 교류 관심 증가 - 에너지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 확산	- 태양광패널: 태양광패널의 그리드 패리티 도달 및 중국산 패널 가격 인상으로 수출 가능성 확대 - 스마트미터: 미터기 교체 수요로 향후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
		정유	- EU 역외 석유 완제품 공급 확대 추세 - EU 경기 회복으로 네덜란드 석유제품 수입, 재수출 모두 확대	유탄유: 유럽 자동차시장 회복으로 수요 증가, 한국기업의 경우 고부가 유탄유 제품에 집중하여 높은 마진율 확보 가능
		식음료	- 장기 침체 속에서 비교적 선전했으나 침체로 내수위축으로 실속형 소비 두드러짐 - 싱글범하거나 중간 가격대 제품 입지는 좁아지고 있어 차별화가 관건	- 수프, 소스, 오일: 한국 음식 중에서는 고추장, 불고기 소스 등이 초기 진출에 적합 - 손님 접대용 핑거푸드: 손님 초대가 잦으며 이 때 외국음식을 즐기고 있는 경향이 높음 - 길거리 음식 및 포장 한식 프랜차이즈: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1~2인 가구의 구매가 잦은 편
		조선	- 초호화 요트시장, 유지보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할 전망 - 네덜란드 업체들은 연안운행, 준석, 대형 주력	- 다목적 화물선: 성장잠재력 다대 - 교체용 부품: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 고급요트 부품 및 인테리어제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네덜란드 업체에 제품 공급으로 성장 모색 가능 - 디젤엔진 및 부품: 한국산 인지도가 높은 편 - 친환경선박: 친환경 해운에 대한 요구 강화로 점진적으로 수요 증가 예상
		물류	- 화물처리량 안정세 속에 1%의 근소한 수송량 증가 예상 - 도로사용 대신 내륙운하, 철도, 복합운송 비중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물류시스템 효율성을 위한 다각화된 수송시스템 추진	- 물류서비스업: 유럽 물류 중심지로 관련 기업 진출에 최적지 - 철도기자재: 친환경적인 철도 운송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 철도 및 지하철 기술 수준이 높아 다양한 제품 공급 가능 - 배기가스 오염제어장치 부착 물류 운송차량, 하이브리드 내륙수로용 선박, LNG 선박, 전기추진 선박 등: 지속가능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 항만 터미널 운영시스템, 고객사 시스템과 연동된 물류 시스템 등 IT 소프트웨어: 물류 관련 기술의 혁신성과 효율성의 중요도 증가
		ICT	-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 하드웨어 부문을 필두로 성장 - 사무용 IT용품은 매출 감소 추세 - 웨어러블 관련 제품 부상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동 서비스 이용에 최적화된 IT 통신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
		바이오/생명과학	- 혁신적인 의학기술 발달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꾸준히 성장할 전망 - 민관학 협력체계가 공고 -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 외에 보유품에 대한 마케팅 능력 필요	- 경구나 피부전달 시스템 등 바늘 없는 대안 치료제: 어린이 대상 치료제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 당뇨 관련 바이오 치료제: 당뇨환자 증가에 따른 치료제 개발 수요 증가
벨기에	- GDP 1.4% 성장 - 완전한 경기회복세로 수출입, 투자 증가 -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실업률 악화가 문제	화학	- 세계 최고 기술력, R&D 투자, 유럽 경기 회복으로 생산, 수출입 등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 - 한국산 화학 완제품 수출과 벨기에산 중간재 수입 활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기존 합성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 수요 발생,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품질 개선 및 응용 분야 확대로 수요 증가
		의료/바이오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해 '14년 전망도 밝은 편	제네릭 의약품: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낮고 가격이 높아 복제약에 대한 수요 및 구매 급증

	• 총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의약품 복용량은 증가 추세이나 복제약 출시로 구매금액은 감소	
		물류	• 유럽 경기회복에 따른 해상화물 등 물동량 증가 •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개선 노력으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 재고(Stock)관리를 위한 RFID 장비 및 시스템: 물류 인프라 확장 계획으로 수요 증가
		정유·석유화학	• 경기변화에 민감한 분야로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증가 기대 • 업계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화 전략 수립	• 윤활유 및 1차 석유가공제품: 경기회복에 따른 승 증가
		ICT/전기전자	•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수요는 증가 • 재정위기로 가격 중요도가 높아져 합리적 가격에 참신한 제품이 각광받을 전망	• 태블릿PC: 스마트폰과 함께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 꾸준히 증가, 중저가 틈새시장 유망
		건설	• 경기회복세, 주택 리모델링 수요, 공공 인프라 건설 등으로 다소 회복 •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15년도 이후	• 세라믹 타일: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중급 제품으로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 진출 가능
스위스	• GDP 2.3% • 재정위기에 EU 평균 성장률에 상회했으며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입 • 안정적인 내수 및 낮은 인플레이스 • 안신스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	기계/전자/ 금속산업	• 對유럽 의존도가 높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주문 증가 예상	• 기계부품: 경기회복에 이은 기계 수요 증가로 부품 수요 역시 동반 상승,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 증가 • 인쇄회로: 기계산업 발달로 평소 수요가 꾸준하며 경기회복으로 점차적인 수요 확대 예상
		의료·제약 및업 헬스케어산업	•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본격적인 성장 기대 • 제약산업 발달에도 의약품 가격이 높아 향후 복제약품 등 저렴한 의약품 구매가 증가할 전망	• 의약품: 한국 의약품 관련 수요가 꾸준, 복제약 진출 가능 • 의료용진단기: 테스트마켓으로 고가 제품을 대체할 저렴한 가격대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계	• 중국 등 신흥국과 북미지역 수요 증가로 수출 확대 • '스위스 메이드' 인증 도입 추진중	• 시계부품: 경기회복으로 시계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 손목시계: 소비심리 개선으로 수입 수요 활성화 기대
오스트리아	• GDP 1.7% 성장 • 내수, 기업투자, 수출입 등 주요 지표 회복 예상 • 고용악화로 실업률은 증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 신차 시장의 성장세 전환이 가시화되며 관련 부품 시장도 급격히 회복될 전망 • 한국산 차량 증가에 따른 관련 A/S 부품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	• 차량용 배터리: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 품질 및 기술력 인정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 기타 자동차부품: 교체용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신재생)에너지	• 환경에 대한 관심,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꾸준한 성장세 예상 • 태양광 모듈, 수력발전 관련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산 수요 발생	• 태양광패널 및 관련제품: 정부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열펌프: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판매 확대 예상
		ICT/전기전자	• '12년 회복 이후 5% 이상 성장세 기록중 •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로 대폭 성장 기대 • LTE 사업자 선정에 따른 수입을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방침	• LED조명/모듈: 백열전구 사용금지 조치, LED 조명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 위성방송수신기: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 중이며 월드컵 특수로 올해 수요가 급증할 전망
		스포츠/ 레저용품	• 스포츠레저에 관심이 많은 국민성으로 연평균 2~3%의 꾸준한 성장세 기록, '14년 전망도 밝은 편	• 자전거, 스키헬멧: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가, 헬멧 착용 의무화 등으로 관련 제품 수요 급속히 증가 • 기능성스포츠의류: 기능성 제품 수요가 높은 가운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 수입수요가 높음

핀란드	- GDP 1% 초반대 성장 전망 - 긴축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 미국, EU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이나 수내감소는 위우려 - 소비심리는 점차 회복과 사회복합금으로 다시 위	식품 산업	- 합리적 구매 성향으로 판매 단가가 인하되어 1%의 소폭 성장 - 아시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불고기 소스: 인기를 끌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반조리 소스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김치통조림: 김치 효능에 대한 관심 증가
		(신재생)에너지	- 풍력, 바이오에너지를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지속 성장 - 발전시설 전체보다는 특정 부품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현실적	- 풍력터빈: 유럽산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 바이오에너지플랜트: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높아 관련 설비/제품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의류, 섬유산업	- 소비심리 개선으로 '13년 대비 3% 성장 - 계절적 특성으로 기능성 제품 비중이 높은 시장	- 기능성 아웃도어의류: 중년층의 수요가 높고 유럽 진출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 높음 - 스카프, 모자 등 패션 액세서리: 한류 영향으로 청소년층에서 관련 제품 선호도 증가
		ICT/전기전자	핵심산업이나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장 규모 5% 가량 축소	- 핵심부품류: 시계, 휴대전화용 리튬배터리, 안테나 등 고품질의 핵심부품 수요 꾸준히 - 소프트웨어: 한국산 게임, 그래픽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증가
스웨덴	- GDP 1.6% 성장 - 법입세 인하, 민간소비, 법정부채지출 확대, 한 저금리 내수진작을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	자동차부품	- 자동차시장 회복으로 완성차 및 부품 수요 증가 - 원가절감 압박으로 공급선 전환 움직임	- 기어박스: 공급선 전환 움직임,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프레스금형: 한국산 품질 제고에 따른 인지도 개선 - 오일필터: 오일필터 교체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 수입 수요 꾸준히
		건설업	- 주택건설 활성화, 대형 건설프로젝트 재개 - 시장 전망이 밝음 - 각종 건설장비 및 기자재 수요 증대	- 건설장비: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일본산, 한국산 수입이 많아지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각종 건축자재: 건설경기 회복으로 각종 내외장재 수요 증가
		보건/의료	의료분야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소형 자가측정 장비, 응급조치 기기를 중심으로 시장 수요 증가	- 혈당계: 당뇨환자 수가 지속 증가 중이며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심장제세동기: 심장마비 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 비치되고 있어 수요 지속 증가
		보안장비	폭력 및 강력사건 증가 등으로 보안관련 제품/장비 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CCTV: 설치 영역 확대로 수요 증가, 한-EU FTA로 한국산 가격경쟁력 개선
이탈리아	- GDP 1.1% 성장 - 정부에 비해 외부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 수출증가와 내수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 수출증가와 내수 활성화가 경기회복의 - 잇따른 총리 교체 등 불안정 - 정치회복의 최대 - 불안 - 요소	철강	- 경제성장폭이 미약하여 시장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현지 철강 수급 어려움으로 수입 수요는 증가 예상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 동 부품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수급 불안정으로 수입 수요 지속 증가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시장이 보조금 축소, 공급과잉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으나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는 '14년 이후 회복할 전망 - 에너지효율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강화 제도 및 정책은 지속 추진될 전망	소형 풍력터빈: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가 낮고 정부 인센티브가 보장되어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부품	- 완만한 회복세 기대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부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 전장제품: 지능형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타이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ICT	0.3%의 소폭 성장 기대	태블릿PC: 속도, 휴대성, 기능성을 앞세워 시장 확대

			소프트웨어, ICT 솔루션, e-컨텐츠 등의 분야 전망은 밝음	스마트폰: 프리미엄 신제품, 보급형 모델 보급으로 한국제품의 선전은 계속될 전망
		화학섬유	'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 탈출 - 이탈리아는 고가의 천연섬유에 강점을 보유, 합성섬유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수요가 꾸준한 편	- 나일론직물: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 폴리아미드단섬유: 제조업 부활 등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의료/제약	- 의약품 생산, R&D 투자, 해외시장 점유율 - 의약품에서 선두주자 -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등의 실적이 우수하며 경기전망도 좋음	- 제네릭의약품: 15%대 성장이 기대되는 등 이탈리아를 위시한 선진국 복제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기회 증대 - 바이오의약품: 가격이 높은 탓에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한국산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할만함
스페인	- GDP 0.7% 성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수출호조가 내수침체 -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 구매력회복은 저하에 따른 - 기업투자 개선이 미진 - 기업대외자금조달 환경 악화 가능성 상존 - 고실업률, 재정불안정 등이 - 신변수	자동차/자동차부품	- 유럽 시장 회복과 정부 구매지원책으로 내수 증가,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 차세대 모델의 스페인 내 양산 등의 요인으로 시장 활성화와 예상 - 자동차 시장 활성화로 부품 시장 역시 동반 상승	- 자동차배터리: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완성차 생산 증가에 따른 배터리 수요 확대 - 브레이크패드: 한-EU FTA에 따른 한국산 가격경쟁력 제고로 관심 증가
		신재생에너지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 지원 대폭 - 국내 발전시설 건설이 위축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	- 태양광패널: 상당수 스페인 EPC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이들에 대한 패널 공급 추진 필요 - 인버터, 발전기: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업들에 대한 제품 공급 기대
		ICT	- 각종 IT 기기 판매 증가, 스마트폰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급속한 성장 기대 -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시장도 활성화될 전망	- 스마트폰케이스: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액세서리 판매 동반 상승, 기기손상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수요 증가 -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
		식음료	- 경기회복으로 동 분야 매출도 회복세로 전환 기대 - 인스턴트식품 소비 증가, 아시아산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트렌드 - 자체브랜드 제품 성장세가 두드러짐	- 인스턴트라면: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취급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 - 장류: 아시아식 소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그리스	- GDP 0.6%로 7년 만에 플러스 성장 - 재정적자 축소, 수출입은 - 재보합세, 고정투자 - 감소폭 축소, 실업률 - 소폭 감소 전망 - 고실업률에 따른 - 가계소득 감소로 - 소비회복에는 - 시일 소요	자동차부품	- 완만한 수요상승이 기대되며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도 증가할 전망 - 한국 부품에 대한 평판이 좋고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 전망 밝음	자동차배터리: 전량을 수입에 의존, 경쟁국 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대등한 품질로 바이어들의 수입 수요 증가
		ICT/전기전자	-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일 소요 - 공공 프로젝트 발주 증가, 내수회복이 침체 - 탈출에 기여	- 태블릿PC: 수입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수요가 꾸준할 전망 - CCTV: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보안 관련 장비 수요 증가
		해운	-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해운 물동량이 증가, 주요 선주들의 선박 구입 증가로 이어질 - 전망 - 친환경 소재 부품 수입이나 이를 활용한 선박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기대	선박평형수처리 국제 규정에 따라 친환경 선박평형수처리 장치 수입 수요 증가
		에너지	긴축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로 에너지절감 제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전망	- 스마트 미터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동 제품 설치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제품 수요 발생 - LED조명: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불가리아	- GDP 1.8% 성장 - EU 경기회복으로 성장률 상승, 교역 증가 예상 - 재정적자·공공부채 소폭 하락 - 정치안정과 EU 기금으로 기업투자 개선	합성수지	- 합성수지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음료용기 및 포장용기 수요 증가로 수입수요도 지속 성장할 전망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2년 한국이 반덤핑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한국산 수입 급증
		자동차부품	- 자체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 해외 업체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애프터마켓 형태 - 경기침체로 신차 시장이 축소된 반면 중고차 판매가 확대되며 부품 수요 증가	브레이크 패드: 중고차 점유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기대
		섬유	- 주로 유럽 의류업체의 OEM 방식으로 생산 - 중고가 의류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고급 직물을 중심으로 수입	- 폴리에스테르섬유: '13년 한국 제품 수입이 전년대비 157% 증가 - 편직물: 한-EU FTA에 따른 관세(8%) 철폐로 가격경쟁력 제고
		의료	- 정부가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황 - 민간병원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	X선 및 방사선기기: 가격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13년 한국산 수입이 전년대비 약 20배 급증
		식음료	- 불가리아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 - 과일, 채소 용기로 주로 캔을 사용	석도강판: 통조림 캔 사용 증가로 원재료인 석도강판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세
		가전	- 유럽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시장규모 회복 - 한국 제품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냄	에어컨: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대폭 상승
루마니아	- GDP 2.2% 성장 - 주요 경제지표 양호 - 수출전 성장세, 소비심리 호전 -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예상	자동차부품	- 중고차 수입 확대와 노후차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A/S 부품 수요가 꾸준히 성장 -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제조업체와의 직거래에 관심 표명	자동차 A/S 부품: 열악한 현지 도로사정으로 소모성 부품의 수요가 높음
		의료/제약산업	-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 성장세 - 의료시설을 현대화를 위해 첨단기기 수입수요 증가	진단용 영상기기(초음파검사장비, 진단장비, 영상장비): 전체 의료기기 수입시장의 약 30% 차지
		환경/플랜트	- EU 환경지침 준수를 위해 상하수도 시설 보급 확대 추진 - EU 기금('14~'20) 수혜 프로젝트 내용이 '14년 중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 도시 폐수처리, 플랜트용 장비: EU 도시폐수처리지침(UWWTD)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 수요 발생 - 음용수처리 플랜트: EU 음용수지침(DWD) 이행을 위한 관련 프로젝트 수요가 높음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발전은 '13년에 급성장 '14년 시행된 녹색인증 인센티브 축소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완만한 성장 예상	- 태양광패널 및 모듈: 태양광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로 최근 수입액이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 풍력발전터빈 및 타워: '14년 약 600개의 풍력발전 타워 및 터빈수요 예상
체코	- GDP 1.4% 성장 - 코로나화 약세와 EU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경기회복 기대, 가계소비 증가 - 재정건전성도 양호 - 인센티브 축소로 FDI는 감소 우려	자동차부품	1,2차 벤더 부문에서 유럽의 허브 역할을 담당 - SUV 차량의 인기가 높아 이에 따른 부품수요 증가 예상	- 개스킷, 와셔, 그밖의실: 소형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주형틀 및 주형베이스 등: 현대·기아차 생산에 사용됨
		ICT	'17년까지 꾸준히 성장 예상 - 최근 데이터 규모 증가에 따라 데이터 보호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 광통신망장비: 정부 차원에서 광통신망 인프라 확대 추진 중 - 데이터 저장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보편화로 기업들도 데이터 저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전기전자	- 산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기전자산업도 '13년 말 성장세로 반등 - 건물 및 산업자동화 부문의 수요 증가 예상	LED 가로등: EU의 백열전구 판매 금지 결정으로 수요 상승
		에너지산업	'06년 이후 에너지산업은 매년 20% 성장 - 특히 천연가스차량(NGV) 시장은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됨	- CNG 압축기: EU 에너지지침 및 정부 지원으로 인해 CNG 인프라 확대 전망 - CNG 키트: '13년 CNG 차량 판매가 전년대비 46.5% 증가하면서 관련 부품 수요도 증가 예상
헝가리	- GDP 2% 성장 - 산업생산, 투자 증가로 뚜렷한 성장세 - 재정적자, 공공부채 모두 기준치(3%, 60%) 미만 유지 - 서유럽 경기회복세와 포린트화 평가절하가 수출증가 건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물류기반을 바탕으로 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 - 자동차 부품 매출도 회복세	-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내용년수 증가로 주요 부품의 교체수요 증가 - 전자기클램프: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 급증
		건설	'1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 국가 주도의 철도, 원전 프로젝트로 건설시장 활성화 예상	- CCTV: 은행,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보안부문 투자 강화 - LED조명: EU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감형 전구 수요 증가
		통신산업	- 스마트폰 증가, LTE 서비스 개시로 활기 - 선불형 휴대전화(MVNO) 판매 증가가 주요 성장요인	- LTE모뎀: LTE 시장 확대로 모뎀, 라우터 등 관련 장비 수요 증가 - 휴대전화액세서리: 휴대전화 판매 증가로 주변기기 시장도 성장세
		의료/제약	- 정부정책으로 치과 의료관광 선도국으로 부상 -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한 성장 예상	- 영상진단용 의료기기: EU 기금 투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증가 - 치과용 의료기기: '18년까지 꾸준한 시장 성장 예상
		신재생에너지	-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비중이 높음 -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	바이오매스 파워플랜트 및 파이프라인: 바이오매스를 지역난방에 활용하기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생
폴란드	- GDP 2.9% 성장 - 고용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 조위터화 약세로 수출 증가 -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 유지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투자 활성화	자동차부품	승용차 부문 성장은 주춤하는 추세이나 밴, 트럭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부품 시장은 호황	- 에어백: 수요 지속 확대 - 라디에이터: 최근 한국제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
		에너지	- 화석연료 의존도가 85%에 달해 원자력, 셰일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 대출 등 지원정책 마련	-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EU 지침에 따라 '20년까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장착 의무화 - 변압기: 전력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
		ICT	- 시장 규모는 향후 지속 확대될 전망 '디지털폴란드' 프로그램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추진	- 광섬유: 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따라 광섬유 수요 증가 - 전자책리더: 폴란드인들은 평균 독서시간이 주당 6.5시간에 달하며 전자기기에도 친숙함
		가전제품	-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유럽의 가전제품 생산기지로 급부상 - 백색가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될 전망	- 세탁기 부품: 현지생산 확대로 부품수입 증가 - 태블릿PC: 행정업무 디지털화에 따른 공공수요 발생
		항공	-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항공 생산기지로 부상 '17년까지 항공산업 R&D에 1억 2,5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전자 항공시스템 부품: 항공전자 분야 R&D 투자확대에 따른 시스템 및 부품 수요 증가
		의료기기	- 유럽 재정위기와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의료기기 및 소모품 시장 축소 '14년 이후 EU 기금을 통한 의료기기 구매 확대 기대	디지털 X-ray 카메라 및 MRI스캐너: 보건의료 부문 현대화에 따라 첨단장비 수요 급증

크로아티아	- GDP 0%대 성장 예상 - EU 기금 유입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재정적자·공공부채 과다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 높은 실업률, 기업투자 및 소비심리도 여전히 부정적	정보통신	'09년 이후 IT 시장 규모는 감소세 '13년 EU 가입 이후 EU 기금 유입 기대로 회복 조짐	- ITS 시스템: 복합운송 ITS시스템, 대도시 교통통제시스템 등이 유망 - 전자정부시스템: EU 기금의 주요 수혜사업이 될 전망
		관광	- 크로아티아의 대표 산업 - 아시아 관광객 증가, EU 국가와의 국경 출입 원활화로 '14년에도 성장 예상	- 각종 레저용품: 해안 관광지용 수상 레저용품 유망 - 한국식품점 및 식당용품: 크로아티아 내 한국식당 및 식품 부재
		보안	- 재정위기의 여파로 치안이 악화되어 보안장비 수요 증가 - 최근 기업 및 일반 상점에서도 보안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디지털도어록: 기존 시건장치 대비 편리한 비밀번호 방식의 디지털도어록이 인기 - CCTV시스템: 사무용 건물의 중앙통제시스템 도입 증가
		수자원 관련산업	- 공공하수도, 폐수처리 시설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향후 3~5년 내 수자원 처리시설이 대폭 개선될 예정	폐수처리 시스템: 폐수처리 시설 개선에 EU 기금 지원이 집중될 전망



작성자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밀라노무역관	최윤정
◆ 마드리드무역관	전수연 과장
◆ 아네테무역관	우병일 과장
◆ 선진시장팀	이동훈 대리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Global Market Report

유럽 경기전망 및 산업별 기상도 - 남북유럽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김 성 수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